

# 델리

## 내 기억 속의 도시,



**A.J. 토머스** 인도 케랄라의 산악 지대에서 태어나 코치의 통신경영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마하트마 간디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영어와 말라얄람어로 문학과 문화에 관한 수많은 글들을 《인디아 익스프레스》 《데칸 헤럴드》 등에 발표했다. 시, 단편소설, 서평 등을 영문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말라얄람어와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1993년 카타 번역상과 2007년 인도의 부커상이라 불리는 허치 크로스워드 번역상 등을 수상했다.





뉴델리 건설 백 주년 기념이 2011년 내 계속되다가 연말에 막을 내렸다. 사실 뉴델리는 델리의 여덟 번째 도시이다. 영국인들이 세운 뉴델리는 반듯한 도로와 장중한 공공건물과 관리들의 주거지인 단층 방갈로를 갖춘 계획도시인데, 이제 는 도시국가의 성격을 띤 수도권 델리에서 가장 알짜인 뉴델리 광역권에 편입된 형국이다. 다른 일곱 개 도시는 뉴델리를 감싸며 수도권인 델리를 이루고 있다.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들 중 하나로서, 약 삼천 년 전에(일부 학자는 약 오천 년 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인드라프라스타(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판다바 왕자들이 다스린 고대 수도)의 형태로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유적지는 뉴델리 중심부에 있는 고대 요새인 푸라나 킬라 안에 있는데, 요새 바로 옆은 국제 무역박람회장인 프라가티 마이단이다. 이 유적지에서는 역사가들이 ‘마하바라타’ 시대인 기원전 약 천 년 전 것으로 추정하는 채문화색토기(Painted Grey Ware)가 발굴되기도 했다.

『마하바라타』에 따르면, 인드라프라스타에 있는 궁전의 대회당(Great Hall)이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한다. 데바(신)의 건축가이며 아수라(악령)인 마야가 이 회당을 지은 것은, 한다바 숲의 엄청난 화재로부터 그의 목숨을 구해준 아르주나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 『마하바라타』의 화자인 바이삼파야나는 아르주나의 증손자인 자나메자야 왕에게 회당의 건립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위대한 왕이시여, 튼튼한 황금 기둥을 가진 그 회당은 둘레가 일만 큐빗이나 되었습니다. 빗줄은 불 같기도, 해 같기도, 달 같기도 한 것이 화사하면서 영묘했습니다. 태양의 눈부신 장관에 도전할 만큼 놀라운 그것은 황홀한 불빛처럼 영묘하게 빛났습니다. 산처럼, 장마철 구름처럼 하늘을 가린 채로 서 있는 그것은 기다라면서 널찍하고, 매끈하며 흠 잡을 데 없고, 아무리 봐도 물리지 않았습다. 재료는 최고급이고, 벽은 보석으로 뒤덮인 꽃 장식 같았고, 진귀한 돌과 보물로 꽉 찬 그것은 바로 비스와카르만이 공들여 지은 것으로 (...)

이는 물론 시인의 지고한 상상일 뿐이다. 초라한 채문 회색토기를 서사시에 언급된 황금이나 보석, 진귀한 돌이나 보물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으랴.

인접한 위성도시 구르가온은 정말로 구루그람(구루의 마을)이다. 『마하바라타』 이야기의 판다바 왕자들과 카우라바 왕손들의 스승이자 주군이었던 드로나하라의 마을이었다. 크리슈나 신이 카우라바들이 마하바라타 전쟁을 막으려고 중재를 했을 때 카우라바들이 판다바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했던 다섯 마을이 모두 델리 주변에 있다. 그 중 하나는 인데르파트(인드라프라스타)인데, 이 마을은 델리의 고대 요새인 푸라나 킬라 지역의 남쪽에 있는, 앞서 언급한 발굴지에서(성벽에서 보면 움푹 파인 터가 눈에 띈다) 19세기 말까지 남아 있었다. 그 나머지는(소네파트, 파니파트, 킬라파트, 바그파트) 전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마하바라타 전쟁의 싸움터인 쿠루케트라는 델리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있다. 인드라프라스타에서 발굴된 채문화색토기와 같은 유형이 파니파트, 바르파트, 쿠루크셰트라, 하스티나푸르(델리 북서쪽으로 백육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카우라바들의 수도)에서도 발굴되었는데, 이는 『마하바라타』와 관련이 있는 지역들에서 비슷한 물질문명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준다. 비슈누 신의 여덟 번째 화신이자 『마하바라타』의 주인공 중 하나인 크리슈나 신의 탄생지인 마투라는 남동쪽으로 약 팔십 미터 거리인 야무나 강변에 있다. 크리슈나 신이 어린 시절에 자주 출몰하던 브린다반은 강 건너 몇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그러니 델리와 그 주변 지역들은 인도 최고의 대서사시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화와 전설에 감싸여 있다. 전설에 따르면 크리슈나 신의 동시대인인 마하라자 아그라센이 인드라프라스타 건설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아그라센 키 바올리(아그라센의 계단 우물)는 지금도 센트럴 델리 안에 있는 미국 교육재단 인근의 바라함바 로드(천오백 년이나 됐지만 놀랍게도 새 것처럼 보이는 열두 기둥 바라함바에서 가져온 이름이다)에서 보인다. 따라서 『마하바라타』에서 인드라프라스타를 판다바들이 (그들의 삼촌인 드리타라스트라가 왕국을 분할할 때 쥐꼬리만큼 떼어준 한다바 숲 터에다) 지었다는 언급에는 신화적, 고고학적, 역사적 근거가 혼재되어 있는 듯하다.

이상과 같이 너무나 오래된 고대의 신화적 출발에서부터 유사 시대 이후로 넘어와서 델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 첫 기록은 아소카 대왕(기원전 304~232)이 바위에 새긴 칙령을 둘 장소로 델리를 택했다는 대목에서다(이 바위는 이스크

콘 사원 인근인 라자 다르 싱 로드(에 있다). 이 칙령은 서민과 부자, 권력자,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는데, 이를 보면 당시의 델리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다 사는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유적은 굽타 왕조기(300~600)의 그 유명한 철기동인데, 이것은 지금 쿠티브 미나르에 인접한 쿠와트 알 이슬람 사원 앞에 서 있다.

델리의 두 번째 도시인 랄콧(Red Fortress)은 지금의 쿠티브 미나르가 서 있는 델리 남부에 8세기경 토마르의 왕 아난가팔이 세웠다는 설이 있다. 12세기에는 라지푸트 왕인 프리트비라지 하우한이 랄콧 유적지에 그의 수도인 킬라 라이 피토라를 건설했는데, 그 바깥 성벽을 지금도 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 출신의 침략자 무하마드 고우리는 전투에서 프리트비라지를 물리치고 인도 북부 지역 대부분을 정복했는데, 주로 그의 튀르크계 노예이자 총사령관인 쿠티부딘 아이박의 보좌를 받았다. 고우리의 정복군은 동으로 벵골까지 진출하여 이슬람 세력의 여러 세기에 걸친 북인도 침략 물결을 선도했는데, 그 결과 인도의 주요 지역들은 약 육백오십 년 동안 외국계인 여러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쿠티부딘 아이박은 델리의 술탄이 되어 노예왕조를 창건했고, 12세기 말엽 더 넓은 지역에 델리의 세 번째 도시인 메라우리(Mehrauli)를 건설했다. 아울러 그는 위대한 수피교 성인인 하즈랏 크와자 쿠티부딘 바크티아르 카키의 이름을 따서 승전탑인 쿠티브 미나르를 세웠다. 그는 그 전에 북인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쿠와톨을 지었는데, 그 주변엔 그가 이미 파괴했던 힌두교 사원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본래 사원들의 기둥이었던 돌판에 여러 신들의 머리를 나란히 새긴 부조(浮彫)는 지금도 볼 수 있다. 쿠티부딘의 전기 기자인 하산 니즈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쿠티부딘은 델리에 자미 마스지드를 지어, 그가 코끼리를 동원해 부순 사원들에서 얻은 돌과 황금으로 그곳을 치장했고, 신의 계명이 담긴 토드라 말을 새긴 비문을 외벽 재료로 썼다.”

네 번째 도시인 시리(Siri)는 1303년에 알라우딘 킬지가 건설했으며, 방대한 유적이 아시아드 빌리지 지역 인근에 남아 있다.

다섯 번째 도시인 투글라카바드(Tughlaqabad)는 기야수딘 투글라크(재위 1321~1325)가 지금의 델리 남부에 건설했다. 그의 아들인 무하마드 빈 투글라크

(재위 1325~1351)는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넓히고 놀라울 정도로 요새화했다. 그 이전에 델리 남부에 있던 도시들(시리, 킬라 라이 피토라, 메라우리)의 구조물들을 높고 두꺼운 벽(지금 남아 있는 유적만 봐도 폭이 삼 미터가 넘는다)으로 전부 둘러싸고는 그곳을 자한파나(세계의 피신처)라 불렀다.

여섯 번째 도시 피로즈샤바드(Firozeshahbad)는 피로즈샤 투글라크(재위 1351~1388)가 건설한 곳으로, 메라우리에서 동쪽으로 야무나 강까지, 고대 요새인 푸라나 킬라에서 북쪽으로 오늘날의 샤자하나바드 중심부까지 뻗어나갔다. 피로즈샤는 이 도시 심장부에 그만의 요새인 피로즈샤 코틀라를 건설했다.

그보다 작긴 해도, 그 전에 후마윤은 기존의 요새 유적지에 딘파나를 지었고, 그를 물리친 세르샤 수리는 세르가를 지었는데, 이 둘이 푸라나 킬라라는 복합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무굴제국 직전의 로디 왕조(1451~1526)는 작은 도시를 이루는 자체의 건물들을 지었는데, 그 중 로디 가든에 있는 장려한 로디 왕릉과 모스크(회교 사원) 몇 개만이 남아 있다.

일곱 번째 도시 샤자하나바드(Shajahanabad)는 타지마할을 세운 그 유명한 무굴 황제 샤자한이 야무나 강변에 건설했는데, 고대 요새 유적지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뉴델리(New Delhi)는 1911년에 영국인들이 세운 여덟 번째 도시로, 그로써 델리는 인도의 수도 자리를 캘커타로부터 되찾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도시들에는 그 건립과 관련하여 신화와 전설이 얹혀 있으며, 뉴델리조차도 그러하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누가 델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든 오래 지배하지 못했으며, 가장 최근의 경우는 영국인들이었다! 기존의 지배자들 못지않게 미신적인 영국인들이 뉴델리의 불길한 주춧돌들을 감추었다는 전설도 있다.

델리에 대한 나의 기억은 어디서 시작될까? 아마도 두세 살밖에 안 되던 무렵,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군대 간 삼촌 쿠티파펜의 소식들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케랄라 중부의 동쪽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인 메할의 외딴 오두막에서였는데, 나

는 그 마을에서 내 생애 첫 십 년을 지냈다. 델리는 삼촌이 휴가를 와서 들려준 나를 사로잡은 많은 이야기들의 주무대였다. 역사와 유서 깊은 장소와 사건에 대한 내 열정의 뿌리는 그때 삼촌이 내게 심어준 호기심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타지마할과, 그 하얀 대리석 기념물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은 샤자한 황제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그 시절 나는 델리 안팎의 다른 놀라운 무굴 시대 건축물에 대한 글을 읽었고, 그러면서 델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하지만 정작 델리에 가볼 기회를 얻은 것은 마흔세 살 되던 1995년이었다. 때는 11월이었는데, 도시를 뒤덮은 스모그와 뻗속까지 시린 추위 때문에 처음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두 번째 방문은 1997년 1월에 사히타 아카데미(인도의 국립 문학 아카데미)에서 있었던 인터뷰 때문이었다. 이로써 델리라는 도시에 대한 나의 당혹감은 확고해지고 말았다. 그해 3월부터 7월까지 사 개월에 걸쳐 미국과 영국과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나는 친구들에게 다시는 델리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하지만 알갭게도 나는 같은 해 10월 사히타 아카데미에 퍼내는 잡지 《인도 문학》에서 일하게 되는 바람에 식언을 해야만 했다. 그로써 델리라는 도시와 나의 애증관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물이 나의 시 「델리-1995-2010」이었다.

처음 두 번의 방문 때마다 뉴델리 역에 접근하는 기차에서 내 시선을 끈 것은 프라가티 마이단 박람회장의 전시관들이었고, 그것들 뒤로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인도 대법원의 높다란 돔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오토 릭사(삼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뉴델리 지역으로 이동하면, 백 년 된 식민 시대 복합단지 시장인 코노트 플레이스의 둥근 돌레 앞길을 반드시 지나갔다. 단지의 이 둥근 바깥 구역은 지금은 인디라 축이라 불린다(인디라 스트리트라고도 하는데, 암살당한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원형 시장의 중심부 앞을 지나가는 내부의 원형 도로는 라지브 축이라고 한다(인디라 간디의 아들이자 역시 암살당한 라지브 간디의 이름을 땄다).

뉴델리의 이 유서 깊은 심장부에는 고급스런 매장과 레스토랑 말고도 많은 미술관과 문화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그 중에서 1층에 있는 M-13호는 ‘케랄라 클럽’의 공간인데, 지난 칠십 년 동안 줄곧 델리에 관해 이야기해 온 저명한 케랄

라 출신 소설가들이 모이는 장소다. O.V. 비자얀, 카카나단, M. 무쿰단, 폴 자카리아, V.K.N., M.P. 나라야나 필라이, 아난드, 세투, 우니크리시난 티루바지요두 등과 같은 작가들이 매주 사이테사크얌(문우회)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의 작품을 낭독하곤 했다. 뒤이은 토론은 결함 있는 작품에 대한 매서운 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잘된 작품에 대한 낮 뜨거운 칭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곳은 그들이 말라얄람 소설의 황금기를 열어나가는 동안 만남과 토론과 교류의 장인 ‘학당’이었다. 그들 중에서 지금도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있는 이는 무쿰단과 아난드뿐이다. 나머지 폴 자카리아나 세투 같은 이들은 케랄라로 돌아가 정착했다. 비자얀과 카카나단, V.K.N., M.P. 나라야나 필라이는 작고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델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사이 줄곧 ‘케랄라 클럽’의 키잡이 노릇을 했던 이는 최고의 극작가인 옴헤리 N.N. 필라이 교수로, 지난 육십 년 동안 델리에서 살면서 풍부한 경험과, 델리와 말라얄람 작가들에 대한 섬세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여든일곱의 나이에도 여전히 금요일 저녁마다 클럽으로 난 좁은 나무 계단을 힘차게 오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바대로 문우회 토론을 이끌고 있다!

나는 델리에 정착한 직후에 윌리엄 달림폴의 책 『정령들의 도시(The City of Djinnns)』를 읽고서 벅찬 감동을 받았다. 델리가 온갖 기념물과 왕릉의 도시이며 고대가 살아 있는 유적지란 건 알았지만, 내가 그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인식은 델리에 대한 내 첫 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내 속의 열렬한 사학자와 고고학자가 잠에서 깨어났고, 나는 거의 매일 유적이나 기념물을 찾아가 그것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면밀히 살피고 연원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내가 앞서 언급했던 델리 여러 도시들의 유적지들은 전부 직접 찾아가본 곳들이다.

내 딸이 아우로빈도 마루 거리에 있는 마더스 국제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 자리가 무하마드 빈 투글라크의 궁전 바깥 입구 부근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그곳은 매일같이 몇 명이 코끼리에 깔려 머리가 부서지는 처형을 당하던 돌 제단이 있던 곳이었으며, 그 황제는 궁전인 비자이 만달(동쪽으로 조금 더 안쪽에 있으며 지금은 주거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의 가장 높은 발코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이 이야기는 중세의 위대한 여행가이자 한때 그 술탄의 대법관인 카디



를 역임했던 이븐 바투타의 『여행』에 나오는 대로인데, 그는 모로코 출신이며 그곳에 혼한 베르베르 부족들 중 하나인 라와티 사람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모로코 인접국인 리비아의 아즈다비아를 지나게 되었다. 나는 딸을 걸려서 학교에 데려다주며 말비야 나가라와 시발릭 주거 단지들을 건너다니며 베굼푸르 회교 사원 앞을 지나가곤 했는데, 그곳은 중세기에 가장 큰 모스크의 하나였다.

학교에서 동쪽으로 일 킬로미터 거리에는 하우스 하즈가 있는데, 여기는 중세기의 거대한 상수도 처리장으로, 피로즈샤 투글라크와 대규모의 무슬림 신학대학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먼 곳에서 학생들이 찾아오곤 하던 곳이었다. 피로즈샤의 왕릉이 있는 곳도 이곳이다. 같은 길을 따라 동쪽으로 오 킬로미터를 가면 사프다르중의 묘가 있는데, 그는 무굴제국 황제 아메드 샤 바하두르 때의 총리인 와지르를 지낸 이였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마하트마 간디가 총격을 당한 자리이며, 거의 같은 거리에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한 사프다르중 로드 1번지가 있다. 묘 바로 옆은 인디라의 아들 산자이 간디가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은 미니 비행장이다.

내가 일하던 사히타 아카데미는 텔리 중심부의 만디 하우스 로터리에 있었다. 근처에 대법원이 있고 푸라나 킬라와 멀지 않으며, 푸라나 킬라 바로 옆에는 고



사프다르중의 묘



푸라나 킬라 성벽

대 유적지인 인드라프라스타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가본 곳은 토마르 왕이 건설한 푸라나 킬라였다. 이곳은 나중에 세르샤 수리에 의해 재건되었는데, 그는 무굴의 두 번째 황제 후마윤을 무찌른 이였다. 후마윤은 페르시아로 달아나 십이 년을 떠돌아야 했다(그 사이 그의 아들 잘랄루딘 무하마드가 태어났으니, 나중에 아크바르 대제가 된 이였다). 그는 빼앗긴 도시와 제국을 되찾을 기회를 넘보다가 결국 세르샤가 자연사한 직후에야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세르샤는 시리 요새에서 치운 돌로 재건 작업을 했고, 후마윤은 그 작업을 마치고서 요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후마윤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기 직전에 이르자 그의 부친이자 무굴 왕조를 세운 바부르는 알라에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 병을 그에게 옮겨 그의 아들과 왕위 계승을 구해달라고 빌었던 것이다. 선왕의 소원대로 후마윤은 살아남아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 한편의 환각 때문에 대체로 정신이 혼미했다. 후마윤은 팔각형인 도서관의 나선형 계단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 건물은 요새 유적지 내에 아직도 잘 보존이 되어 있으며 내가 딸을 데리고 가보기도 했던 곳이다.

요새의 동쪽 성벽 바로 바깥은 고대의 바이라브 사원이 있다. 이곳에서 사람

들이 신에게 가장 즐겨 내놓는 제물은 온갖 종류의 술이다. 술은 아주 비싼 스카치위스키에서부터 싸구려 농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믿는 사람의 형편과 절박함에 따라 달라졌다! 술을 바치는 사람 옆에 있는 이들은 신의 은총의 징표로서 남은 술인 프라삿을 얻어 마실 수 있는데, 잘하면 실컷 마실 수도 있었다!

후마윤의 왕릉은 남동쪽으로 약 이 킬로미터 거리에 있다. 아주 매력적인 이 건물은 약 팔십 년 뒤에 지어진 타지마할의 주 모델이 되었다. 후자는 이 건물이 타지마할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고 말한다. 호드슨의 말(Hodson's Horse) 기병대를 이끈 영국인 호드슨 소령이 마지막 무굴 황제와 저명한 우르두(파키스탄의 공용어) 시인 바하두르샤 '자파르'와 그의 두 아들을 생포한 곳이 바로 여기였다. 그들은 영국이 1857년의 1차 독립전쟁을 분쇄할 때 이곳에 피신해 있었던 것이다.

후마윤 왕릉 서쪽에는 수피교 성인 하즈랏 니자무딘 아울리아의 유명한 성묘(聖墓, 다르가)가 있다. 그는 하즈랏 쿠트부딘 바크티아르 카키의 정신적 형제였는데, 이 주변의 지명은 이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델리에서 유명한 기차역 세 곳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 성인은 기야수딘 투글라크와 그의 아들 무하마드 빈 투글라크와 같은 시대를 살았다. 하즈랏 니자무딘 성인은 술탄인 무하마드가 압력을 가해오자 세속적인 권력에 은근히 맞섰다. 뒤이은 대결에서 성인은 술탄에게 델리에는 물이 모자라 큰일이니 온 백성과 그들의 가산을 이끌고 수



후마윤의 무덤

© 고영준



니자무딘 아울리아의 성묘

도를 인도 중부의 다울라타바드로 가서 옮기라고 재촉했다. (이븐 바투타가 『여행』에서 언급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백성들이 술탄을 비난하는 익명의 투서를 할 것이며, 한밤중에 궁전 담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 성인은 일주일에 차파티 반 개밖에 먹지 않았으며,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면 그마저도 주어버렸다. 이 성인의 묘역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갖가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찾지만 주로 수피교 성향인 사람들이 염원을 이루길 바라며 찾아온다. 지난 팔백 년 동안 성인은 이 성소에서 살아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전설적인 수피교 시인 아미르 후스라우, 샤자한의 딸로서 독실한 수피교 신자였던 자하나라, 위대한 우르두 시인인 아자둘라 한 갈립 같은 사람들도 이 묘역에 묻혀 있다. 나는 이곳에 많이도 가보았는데, 특히 카왈리 성가(聖歌)를 들을 수 있는 목요일 늦은 밤에 즐겨 찾았다. 음이 점점 높아지며 신도들이 빠르게 빙빙 도는 춤을 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야식으로 나오는 바투라(튀김 같은 밀가루 빵)와 양고기 카레의 맛은 아직도 혀끝에 남아 있다!

니자무딘은 카림스 같은 무굴 스타일 레스토랑들로도 유명하다. 나는 2001년 9월 11일 저녁에 열 살짜리 딸을 데리고 카림스에 '특별' 양고기 비랴니(볶음밥)를 먹으로 갔다가, 세계무역센터에서 끔찍한 테러 공격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순진한 사람들은 바라함바 로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믿었는데, 거기에도 세계무역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벽 높이 달려 있는 텔레비전을 슬쩍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1997년 4월에 가보았던 쌍둥이빌딩이 연기와 화염을 토해내다가 금세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의 한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과 그로부터 일주일 거의 내내, 나는 텔레비전 앞을 떠날 줄 몰랐다. 시선이 떠날 때는 기존의 세계 질서를 산산조각 내버린 재앙적 비극과 상관이 있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뿐이었다.

이 영적 회열의 섬에서 남쪽으로 사 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또 하나의 평화의 안식처가 있다. 아소카 대왕의 칙령이 새겨진 바위가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델리 남쪽의 '연꽃 사원(Lotus Temple)'이 그곳인데, 하얀 대리석으로 지은 장중한 현대식 건물로, 막 피어나려는 연꽃 봉오리를 형상화했다. 이곳은 바하이교의 예배소이다. 사원 주변으로 뻗어있는 푸른 공원들의 평온함과 고요함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느끼게 되는 아취(雅趣)를 전해준다. 너무나 고즈넉한 이곳은 명상의 장소로 적격이다. 낮에는 신앙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와서 조용히 기도나 명상을 할 수 있고, 그냥 평온을 즐겨도 좋다. 나는 다녀본 세계의 여행지들 가운데 언제나 이곳을 으뜸으로 꼽는다!

고대 요새에서 붉은 요새 쪽으로 이 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곳에는 피로즈샤 코틀라가 있다. 피로즈샤 투글라크의 요새라고도 하는 이곳은 무하마드 빈 투글라크의 사촌인 그가 나라를 다스리던 요새로, 대부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곳이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 전혀 다른 이유에서인데, 바로 '델리 국제 크리켓 스타디움'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하람(이슬람 달력 첫 달 또는 그달 첫 열흘) 축일에 땅거미가 질 때면 초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들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성스러운 선지자 마호메트의 손자 하산과 후사인의 순교를 애도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같은 날 카르발라에서도 열리는데, 카르발라는 델리에 있는 사프다르중의 묘와 아주 가까우며, 순교가 실제로 있었던 이라크의 카르발라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린다.) 우편테르 싱(만모한 싱 총리의 딸인 유명한 사학자)이 그녀의 에세이 「현대의 델리

에서 고대를 발견하다」(말라 다얄이 편집한 『델리 찬미(Celebrating Delhi)』에 수록)에 쓴 바와 같이, 위에 아소카 왕의 기둥이 서 있는 (피로즈샤가 이 기둥을 하라나에 있는 토프라 마을에서 옮겨왔다) 삼 층 구조물의 벽에는 코트왈리 바바나 다다 미안에게 드리는 신도들의 탄원 글이 붙어 있곤 했다. 이 일대는 많은 정령들(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불에서 창조된 기이한 존재)이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령은 '랏왈레 바바'(기둥의 바바)이다.

코틀라 맞은편에는 '살인 관문'인 후니 다르와자(자)가 있다. 이 관문은 델리 게이트(길 따라 수백 미터 거리에 있는, 샤자하나바드 요새의 열일곱 개 관문들 중 하나) 이



붉은 요새

전에 있던 문이었다. 후니 다르와자라는 이름은 그곳의 성벽에서 교수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에서 따왔다. 여기서 가장 최근에 교수형을 당한 이들은 1857년에 패배한 독립투사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무굴 황제 바하두르샤 자파르의 두 아들도 있었다. 델리 게이트 서쪽으로 오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는 튀르크멘 게이트가 있다. 이 관문이 악명을 얻은 것은 인디라 간디의 둘째 아들인 산자이 간디가 이 일대의 방대한 빈민촌과 무슬림의 수백 년 된 건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없애 버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자이 간디는 1975년 6월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국가 비상사태 때 이 지역 남성들에게 불임 시술을 강제하기까지 했다.

붉은 요새 북쪽에는 델리의 첫 영국인 정착촌이 있다. 인상적인 성 제임스 성

당을 비롯한 식민 초기의 건물들이 있는 이곳에는 도로나 지명이 영국식인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시빌 라인즈’, ‘로디언 로드’, ‘킹즈웨이 캠프’, ‘아웃랩 라인즈’, ‘코로네이션 파크’ 같은 식이다. 델리대학도 여기에 있다. M. 무쿰단의 단편 소설 「강을 기억하다(Remembering a River)」도 여기 어딘가가 배경이다. 델리에 와서 산 지 얼마 안 되어 성 제임스 성당에 갔을 때, 나는 식민 시대의 역사에 대해 이런저런 상념을 떠올리게 되었다. 인도 문화와 섞이려고 애썼던 윌리엄 프레이저(William Frazer, 윌리엄 달립폴의 아내인 올리비아 프레이저의 조부의 숙부 되는 이다) 같은 다채로운 인물들이나, 1차 독립전쟁과 그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여파에 관한 상념이었다. 그보다 오래된 역사도 뇌리에 마구 떠올랐다. 무굴인들의 조상인 ‘절름발이 티무르’(티무르 제국을 창건한 타메를란 대왕)는 1399년 여기 있는 세노타프 언덕 정상에 야영을 하면서 그의 군사들이 아래 평원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살상과 약탈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단 하루 만에 십만 명이 참수를 당했다. 그의 기록인 『말푸자티 티무리(Malfuzat-i-Timuri)』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사이드(마호메트의 직계인 사람, 올라마(이슬람 학자), 그 밖의 무슬림인 사람들이 사는 곳 말고는 도시 전체를 강탈했다. 운명의 펜은 이 도시 사람들에 대해 이 같은 운명을 적어놓았다. 나는 그들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 도시에 그러한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 (...) 델리의 세 도시인 시리, 자한파나, 옛 델리(메라우리) 모두 강탈당했으니 (...)”

1739년에 델리를 비슷한 식으로 강탈했던 페르시아 황제 나디르샤는 3월 22일 단 하루만에 샤자하나바드 주민 삼만 명을 처형했다. 그가 1739년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3개월을 점령하는 내내, ‘달빛 광장’이란 뜻인 찬드니 축 중심을 흐르던 운하(실제로는 거리였으며 당대 세계 최대의 시장 거리였다)에 사람의 핏물이 흘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그는 샤자한 황제의 멋들어진 ‘공작 왕좌’와 더없이 귀한 다이아몬드인 코이누르와 다라에누르를 가지고 달아나버렸다(코이누르는 결국 대영제국 제왕의 왕관에 쓰이게 되어 지금까지 붙어 있다). 역대 최고의 우르두 시인이었던 메르 타키 메르(1723-1810)가 다음과 같은 시를 쓴 것은 그렇게 황폐해진 다음이었을 것이다(쿠시완트 상이 번역했다).

한때는 근사한 도시가 있었노라

이 동부 지방 사람들아

내 딱한 형편을 알고서 나를 비웃는구나.

그대들끼리 키득거리며 나에게 묻는구나.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내 말해 주리다!

한때는 근사한 도시가 있었노라고.

세상 도시들 중에 가장 유명하던 곳이

패망하고서 황폐해졌노라고.

내 고향인 그 도시의 이름이 델리라고.

영국 식민주의자들이 분쇄하는 데 성공했던 1차 독립전쟁은 샤자하나바드, 그리고 델리의 다른 지역들에서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위대한 우르두 시인 갈립은 “내 바로 앞에서/ 나는 핏물의 강을 보고 있다”라고 썼다. 그는 영국 승전군이 “눈에 띄는 사람은 다 죽이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며” 진군했다고 전한다.

과연 핏물은 마하바라타 시대로부터 줄곧 델리를 관통해 흘렀던 것이다!

내가 붉은 요새를 방문한 건 한참 뒤의 일이었다. 샤자한이 자신의 수도 샤자하나바드에 지었던 요새 궁전인 이곳은 타지마할과 함께 너무나 많이 언급되었기에 여기서 더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단했던 무굴 시대의 이 황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인 ‘디완 에 암’(대중 회당)과 ‘디완 에 하스’(요인 회당)의 벽에 박혀 있던 엄청나게 큰 준보석들이 뿔뿔히 나간, 빈 눈구멍 같은 곳들을 보면 두 차례 약탈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처음엔 1739년에 나디르샤에 의해서, 뒤에는 1857년에 이 아름다운 황궁에서 살육과 강탈과 파괴의 광란을 펼친 영국군의 약탈 말이다. 아름다운 궁전의 넓은 잔디밭 바로 건너편에 지었던 흥측한 막사들도 잔혹한 제국주의 시대를 증언해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막사를 인도군이 써왔다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샤자하나바드에서 델리 게이트를 지나면 있는 다라 간즈는 인도 출판 산업의 메카로 유명하다(‘강가의 시장’이란 뜻인 이곳은 야무나 강변 가까이 있으며, 강은 ‘붉은 요새’ 입구 바로 앞으로 흘렀는데, 영국은 1857년 전쟁 이후에 강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이곳은 계획 규모나 건물의 상태 면으로 봤을 때 파주 출판도시와 큰 차이가 있다(파주의 경우엔 건물들이 전부 현대식이며 계획적으로 세워진 데 비해, 다라 간즈의 건물들은 허물어질 만큼 낡았다). 그래도 다라 간즈는 올드델리(거의 73년 전인 1939년경에 완성되었던 뉴델리와는 구분이 되는 도시인 ‘샤하르’로 알려져 있다)에서는 가장 최근에 조성된 곳이었다. 건물들은 앞쪽의 경우엔 주로 19세기나 20세기 초의 것들인데, 그 뒤는 대부분이 무굴 시대의 맨션이며 더 오래된 건물도 있다. M. 무쿰단의 단편소설 「운전사」에 나오는 배경이 대부분 이 일대이다. 일요일이면 이곳의 인도와 점포 앞머리는 전부 헌책 임시 가판대로 가득 찬다. 내가 본 곳들 중에 여기보다 헌책이 다양하게 많은 곳은 없다. 뉴욕시의 스트랜드 서점의 헌책보다 많은 정도다.

세계 최대의 모스크인 주마 마스지드는 샤자한이 세운 것으로, 붉은 요새 바로 맞은편에 있다. 주마 마스지드에서 찬드니 족 원편을 따라 이어지는 갈리(좁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통로)들 좌우로는 무굴 시대 귀족들의 낡은 저택들이 있



주마 마스지드

는데, 지금은 허물어지고 있다. 주로 나무로 지었으며 정교한 조각과 장식이 돋보이는 이 건물들은, 지금은 잃어버린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하며 말없이 외치고 있는 것만 같다. 지금 여기서 다닥다닥 붙어 지내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뉴델리의 널찍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영화 〈델리-6〉에 잘 그려져 있다). 그 격차는 전철의 보급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뉴델리 정착 초창기에, 나와 아내와 어린 딸은 시바 신을 모시는 닐리 하트리 사원에 동트기 전에 가본 적이 있다(이 사원은 마하바라타 전쟁 직후에 판다바들이 세운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사원에서 야무나 강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니감보드 갓 근처의 큰 화장터 바로 옆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얼굴빛이 떠오르는 해처럼 환한 불로장생의 성인 같은 수행자가 동트기 전에 강에서 목욕재계를 하고서 머리를 여러 갈래로 땀은 다음 계단을 올라와 바로 우리 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지금 내 기억에 남아 있는 건 그의 몸이 열은 금빛이었으며, 땀은 머리 매듭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던 모습뿐이다.

그 다음으로 신비로웠던 마주침은 니르말 구루지를 만나볼 때였다. 젊은 과학도였던 그는 자신이 시바 신의 아그니(火)로 현현한 화신임을 깨닫고는 몇 달, 몇 년씩 단식을 하는 타파샤(고행)를 했으며, 고행이 끝날 때마다 신도들에게 다르산(見)을 내놓았다. 우리가 델리 남부에 있는 그의 아시람에 갈 때마다, 고위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정치인 같은 귀빈들이 와 있었다. 내 경우엔 이 구루가 말이 별로 없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를 보좌하는 이들은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신도들이 바친 소박한 차파티와 야채 카레를 먹게 해주었다. 이 구루지는 돈으로 주는 공양은 받지 않았다.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현하여, 모인 사람들은 그저 거기 함께 있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만히 그려보기만 하면 되었다. 찾아오는 사람이 갈수록 느는 것을 보면, 구루가 그들에게 문제의 해법을 선사해준 게 분명한 모양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다르산을 멈추었다. 얼마 뒤 우리는 그가 곧 환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마하사마디(대삼매)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분의 구루지는 델리 남부 메라올리 인근의 비르사 싱 바다

지란 분이였다. 그는 시크교를 믿지만 나름의 종파와 독특한 신앙체계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 그 예지력을 갖기도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거처의 경내에 그런 비전을 본 장소들에 조각상이 있다), 그 역시 머지않아 사마디의 경지에 이르렀다.

1998년 델리에 거주하게 된 뒤로 처음 몇 달 안에, 유서 깊은 곳들에 대한 나의 열렬한 답사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그 뒤로는 일터와 집을 오가는 일상에 매몰되었다. 그런데 그 시절만 해도 델리는 살기 힘든 곳이었다. 오염이 심했는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대단했다. 당시의 델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도시들 중 하나로 꼽혔다. 버스를 기다리느라 I.T.O 교차로에서 10분만 있으면 콧구멍이 시커메지며 막힐 정도였으니! 집에 돌아와 보면 셔츠의 칼라와 소매가 거무스름했다. 게다가 통근용 사설 버스 노선인 블루 라인과 레드 라인은 아주 제멋대로여서, 약 십 년 동안 매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대법원의 명령으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가 도입되면서부터였다. 그 뒤로 대법원의 명령으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디젤 버스는 차차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사설 버스 노선들을 전부 공영화함으로써 '블루 라인'과 '레드 라인'을 없애는 일이었는데, 업주들의 반발이 대단했다. 하지만 힘겨루기에서 정부가 이겼고, 델리 지사인 셰일라 덕싯 부인은 불가능한 과업을 이루어내며 지금 세 번째 연임 중이다. 2002년이 되자 오염 수준은 안심이 될 정도로 낮아졌다. 겨울이면 스모그 때문에 보이지 않던 델리의 갖가지 풍경들이 오후의 여린 별에 다시 빛을 발하였다. 고가도로가 수백 개 지어지면서 교통이 원활해져 배출가스도 줄어들었다.

CNG 혁명 뒤로는 전철 혁명이 이어졌다. 델리 도시 전철 회사(DMRC)는 나와 같은 케달라 출신인, 사심 없고 유능한 E. 스레다란 씨의 지휘 아래 일정보다 빨리 십 년 남짓한 기간에 여러 노선을 완공하는 기록을 세웠다. 전철 객차는 한국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2004년 12월, 이십육 킬로미터 구간의 1호선이 첫 운행을 시작했다. 뒤이은 사업으로 선망은 도시 전역으로 뻗어나가, 이제는 전체



델리 전철 모습

구간이 약 이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그러면서 올드델리는 최초로 뉴델리와 이어졌다. 델리에 와서 살면서 처음 몇 년 동안, 나는 남부에서 북부로 출근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자전거 릿샤로 갈아타고 하다 보면 오가는 데 몇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는 전철 덕분에 십 분에서 십오 분이면 그만이다! 집밖으로 나가볼 엄두를 못 내던, 푸르다를 뒤집어쓴 무슬림 여인들이 이제는 대담하게 전철을 타고 어디로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들의 그러한 생활양식 변화는 영화 <델리-6>에 잘 그려져 있다.

델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발전은 공항의 현대화였다.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은 이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이며 이용객 만족도로는 세계 2위 수준이다.

델리의 극심한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는 인도의 여타 다른 대도시들 보다 견디기가 힘들다. 내 경우 델리에서의 첫 여름 더위는, 델리의 참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견뎌야만 하는 시련이었다. 1998년 여름은 가장 더우면서 길었다. 6월 기온이 벌써 47도까지나 올라갔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수수하면서 초보적인 것이었다. 암 카 파나(망고를 넣고 끓인 물을 식혀 만든 찬 음료)를 마시고, 뜨거운 별에 잠시라도 나갈 때 껌질 벗긴 양파를 거드랑이에 끼는 것인데, 놀랍게도 잘 통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도 0도 가까이 떨어진 기온에 한파가 몰아치면 추위로 죽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델리의 겨울과 여름을 제대로 난 사람이라야 이 대도시의 진정한 주민이라는 말이 내 경



우에 딱 들어맞았다. 그리하여 나는 1998년 여름에 델리 시민이 되는 세례를 받았던 것이다!

2001년에 우리는 거주지를 델리 북서쪽인 인테르푸리로 옮겼고, 거기서 십일 년째 살고 있다. 이곳은 오염이 없는 평온한 지역으로, 뒤로는 '산마루 숲'(Ridge Forest)이 있고, 맞은편에는 수목이 가득한 육천 에이커 규모의 인도 농업연구원(Pusa Institute)이 있다. 나는 아침 일찍 이 연구원 터에서 오 킬로미터씩 산책을 하며 공작 무리의 군무와 깃털을 다듬고 있는 암컷들과 빛깔 누런 공작 새끼들이 뛰노는 광경을 즐기곤 한다. 울창한 나무와 갖가지 덩굴식물, 맑은 공기와 새들의 지저귀음을 즐기기도 한다.

뉴델리 기차역 서쪽에 있는 부산한 파하르간즈 지역은 델리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이곳은 타지에서 온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온갖 종류의 값싼 숙박시설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그만큼 마약이나 매춘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곳에서의 삶은 문제가 많은 만큼 속도도 빠르다. 영화 <데브-D>는 그러한 방탕한 삶의 맥을 잘 짚어내고 있다.

파하르간즈 지역 뒤편으로는 거의 삼 면에 걸쳐 방대하게 뻗어가고 있는 상업 겸 주거 지구인 카롤박 지역이다. 2008년에 최악의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이곳은 상처를 치유해가며 지체 없이 활발한 경기를 회복했다.

뉴델리는 영국의 식민 통치력을 과시하고, 매우 다층적인 관료제를 품기 위해 고안된 곳이다. 움헤리 교수가 회고하듯, 이곳에서의 삶은 1950년대와 1960년 대에도 달팽이 걸음처럼 느렸다. 봄베이(의 부산함에 비한다면 델리는 정말 촌이었다. 그러다 인디라 간디가 집권했고, 방글라데시 해방을 위한 파키스탄과의 1971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라는 암흑 시절이 있었고(인도는 사실상 인디라 간디의 독재 치하에 있었다), 인디라가 선거에 패배했다가 1980년에 재집권하는 일이 있었다. 1982년 아시안 게임으로 델리의 걸모습은 많이 바뀌게 되었다. 도시의 남쪽 자락이 거대한 규모로 확장되고, 새로운 도로와 고가도로와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거의 하루아침에 거대도시로 변모했다.

1990년대에 시작된 경제 자유화 조치로, 도시의 규모는 세기가 바뀔 무렵 거

의 두 배로 팽창했고, 지난 십 년 동안에만 아주 빠른 속도로 더 발전하면서 국가 수도권(NCR)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구르가온, 노이다, 파리다바드 등의 위성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델리에서는 누구나 이런저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다. 델리는 '라조구나'의 장소로 유명한데, 이는 사람들이 무얼 하든 열심히 하게 만드는 기질을 말한다. 힌두교 신앙에 따르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질인 '구나' 중에서 둘째가 '라자스'이다. 나머지 둘은 '사트바'와 '타마스'로, 사트바는 진리를 바로 체험하게 하는 능력으로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며, 타마스는 비활동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질이다. 델리는 도시 전역에 상서로운 건축물들이 많아서 델리에서는 인도의 풍수라 할 만한 '바스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델리가 라자스의 도시라는 말은 타지에서 온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밥벌이를 해서 델리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낀다는 사실로 증명이 된다.

이 도시의 빈부 격차는 구역질이 나도록 확연하다. 남루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 그렇다. 누더기 치마와 더러운 블라우스 차림에 찢먹이 동생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신호에 걸린 번쩍이는 승용차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차창에 고사리 손을 두드리며 동냥을 해도 차에 탄 사람들이 무심하며, 이따금 매정한 노인이 가여운 아이들에게 욕을 해대는 모습을 보노라면, 속이 뒤집힌다. 지독히도 추운 겨울철에 노숙자들 수백 명이 고가도로 밑에 몰려 있는 광경을 봐도 그렇다. 그런 모습을 보노라면,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거들먹거리며 떠들어대는 두 자릿수 성장 지수가 공허하게 들린다. 나라의 부는 삼 퍼센트도 안 되는 이들의 손아귀에 있다. 경제 자유화 드라이브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에 자유시장 지지자들이 폴뿌리 민중들에게 부를 스며들게 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일이다. 인구 십이억이 넘는 나라의 수도가 그런 확연한 빈부차를 보인다는 건 나라 전체가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어떤 수사와 선언으로도 그 격차를 메우지는 못할 것이다. 사회생활의 한 방편으로서 부패는 암중처럼 당연시된다. 게다가 공적 분배 시스템이 형편없고, 거대 산업 프로젝트 때

문에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땅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도시로 몰려드는 가운데 델리가 가장 큰 몫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니, 문제는 나날이 복잡해져 간다. 델리의 지사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따금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들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커져 가기만 한다.

내가 가본 도시들 중에서 가장 쉬운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는 곳은, 훨씬 더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지만 범죄율과 폭력성은 오히려 더 심각한 뉴욕이다. 뉴욕이 세계의 축소판이라면 델리는 작은 인도라 할 것이다. 이 국가 수도권에서는, 인도 연방의 28개 주와 7개 연방직할령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24개의 국어를 구사하며(그 중에 상당수는 천 년이 넘는 역사와 풍부한 문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준 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려 살고 있다. 전국 각 지역과 인접국에서 나날이 유입되는 인구는 도시의 문화 혼합을 하루가 다르게 바꿔가고 있으며, 그 문화적 특성을 매일같이 변화시키고 있다. 델리는 미국의 용광로 개념처럼 다문화화를 녹여 하나의 수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의 언어 및 문화의 줄기가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보다 폭넓은 다문화주의의 강과도 같다. 그 점에서 델리는 지금 인도 문화의 모토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란 개념을 잘 나타내 준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준(準) 국적 출신이지만 델리는 모든 것을 아우른다. 게다가 특히 공화국 창건일 같은 국경일에는 이곳 수도에서 애국심이 쉽게 눈에 띈다.

사람들이 보다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뭄바이와는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균적인 델리 사람들에게겐 시민적 자각이나 주인 의식이 없었다. 지난 십오 년 동안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살인 사건들, 건물주의 잘못으로 백 명이 목숨을 잃는 우파르 화재 참사,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권력의 압력과 고위층의 부패 때문에 덮였던 문제들을 시민들이 뭉쳐서 정의를 요구하자 몇 년 전에 다시 공개되어 힘 있는 범인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 뒤부터는 공익이 중시되고, 사람들이 정의와 공정성을 위해 단결하고 저항하여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나 하자레가 주

도하는 반부패 운동이다.

델리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순간순간, "삼엄한 경계"를 펼치는 보안 작전의 연속 가운데 펼쳐진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수백만 인파를 이 잡듯이 뒤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몸수색과 더불어 짐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이 도처에서 꼼꼼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항이나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기차역에서도, 대부분의 극장이나 관공서나 쇼펄에서도, 심지어 누구나 다 알만한 레스토랑에서도 벌어진다. 하지만 폭탄을 잔뜩 가진 사람이 복잡한 시장을 걸어 다니는 건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지난 십오 년 동안 델리에서 폭탄 테러는, 2008년의 경우처럼 코노트 플레이스와 그곳의 센트럴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봄비는 시장에서 일어났다. 나는 한국이나 리비아에 갈 때마다 공항의 출입구 앞에서 입이 벌어진다. 아무도 몸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몸수색을 할 때마다 내가 위험한 곳에 있음을 늘 상기시켜주는 델리에서처럼 공기 중에 공포가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적응해서 그런 환경을 당연시하게 된 건 사실이지만, 항상 벼랑 끝에서처럼 조마조마하며 살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으며, 어린 사람들은 더 그렇다. 많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특히 미국에서는 보안 검색이 편집증적 수준에 도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일들이 모두 얼마나 심각한지, 느긋하던 옛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어떻게 불가능한지는 내 연작 시 「연속 테러」에 그려져 있다.

인접한 핵보유국과 인도가 아마겟돈 직전으로 치달을 때, 그 나라에 의심스런 기반을 가진 사람이 인도 국회에 폭력을 행사할 때, 나는 어느 쪽이든 한 번만 헛수를 두면 핵전쟁이 발발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상대국도 정치불안을 겪고 있기에 언제나 압력을 받고 있다. 델리 시민들은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저마다 느끼고 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와 이슬라마바드가 몇 백 킬로미터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인들이 소련의 핵미사일에 대해 느끼던 강박보다 훨씬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양국의 평화적 노력 덕분에 좀 덜해지긴 하지만, 아무리 지위가 낮은 시민이라도 핵 위



협의 세세한 실상을 잘 인식하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파멸의 불안 속에 살았던 나 같은 사람에겐 지난 시절이 기억 속에 생생하다.



두세라(Dusserah) 축제 동안 제물로 쓸 라반(Ravan) 모형

색깔 축제인 홀리에서 참가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감을 튀기고 당한 사람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며 불평 없이 놀이에 동참하는 광경은 볼 만하다. 빛 축제인 데파발리에서는 옹기 램프 수백만 개가 빛을 발하고 불꽃놀이를 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 축제를 보면 공동체의 본질적 통일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홀리는 인도 북부 전역에서 거행되는 데 비해, 데파발리는 거의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델리에서는 두 축제 모두에 사람들이 대단한 열성을 보인다.

영롱한 일출과 황금빛 일몰은 7, 8월의 짧은 장마와 신년 전후로 한창인 스모그 때 말고는 일 년 내내 사람들을 반겨준다.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 무렵에는 온 하늘이 연으로 가득하다. 계급과 연령과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지붕에서 연을 날리는 것이다. 하늘을 가득 채운 만화경 같은 색색의 연들을 보면 마음이 환해진다. ‘돌’(장구 비슷한 타악기) 치는 소리는 어떤 행사에서든 빠지지 않는다. 정치 집회든, 자가란(철야기도)에서든, 바랏(혼인 행렬)에서든 언제나 그렇

다. 여인들이 부르는 성가나 각 지방의 민요도 빠지지 않는다. 일 년 내내 수많은 축제가 팡파르와 함께 거행된다. 잘 익은 ‘자문’이란 과일의 향내가 보도를 뒤덮는다. ‘넝’이라는 과일은 상큼하고 쾌적한 향을 발산한다. ‘바쿨’과 ‘마후아’ 꽃은 사람을 마구 취하게 만드는 향기를 뿜는다. 뭍바이와는 달리 하늘을 가리는 고층 건물은 아주 적다. 단정하게 들어선 주택 단지들과 푸르른 녹지가 드넓기도 한 델리는 인도의 그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다. 고층 건물 사이에 갇힌 좁은 길이 많아 폐소공포증을 느끼게 되는 뭍바이와는 달리, 델리에서는 시야가 탁 트여 숨도 탁 트인다. 델리는 이제까지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맛의 본고장이었다. 터키,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여러 민족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덕분이다. 인도의 수도로 성장하면서 인도 전역의 오십 가지가 넘는 요리 스타일이 확립되기도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델리에서는 국제적인 고객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요리든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종류대로 다 있다.

이제 흥미로운 사실 하나로 글을 맺고자 한다. 서울은 델리의 세계 여러 자매 도시들 중에서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

# Delhi: My Memories of the City

**A.J.Thomas** A.J. Thomas (b.1952) is an Indian-English poet, fiction-writer and translator with one collection of poetry and many works of translation to his credit. He translates poetry and fiction from Malayalam into English and vice-versa. He also reviews books. He is the recipient of the Katha Award, the AKMG Prize and the 2007 Crossword Award. He presented papers and was a guest speak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in Australia, Thailand, and Nepal as well as in South Korea. He voluntarily retired in 2010 as Editor of *Indian Literature*, the 200-page bimonthly English journal of Sahitya Akademi (The National Academy of Letters, India) and is serving as its Guest Editor now, while teaching English at Benghazi University, Ajdabiya Branch in Libya.





The year-long centenary celebrations of the building of New Delhi have just been concluded at the end of 2011. In fact, New Delhi is the 8th city of Delhi; though the British built it as a city of streets and avenues, with stately public buildings, and modest one-story bungalows for the residence of bureaucrats and officials, the planned city has now been swallowed up by Greater New Delhi that effectively forms the lion's share of the City State of Delhi. The sites of the other seven cities are spread all around Delhi. It is one of the ancient city-sites of the world, believed to have been first built about 3000(though some date it to nearly 5000 years) years ago in the form of Indraprastha, the ancient capital of the Pandavas of the epic *Mahabharata*. Its site is situated in the heart of New Delhi, within the precincts of the Purana Quila (Ancient Fort), adjacent to Pragati Maidan or International Trade Fair Grounds. Painted Gray Ware (PGW) dating back to around 1000 BC, roughly the time of the great epic *Mahabharata* as speculated by historians, have been recovered during excavations on the site, along with other relics.

According to *Mahabharata*, the Great Hall of the Palace at Indraprastha was the first to be built. Maya, the Asura (Demon)-architect of the Devas(gods), had created it as an offering to Arjuna who had saved his life from the all-consuming fire of the burning Khandava Forest. Vaisampayana, the narrator of *Mahabharata*, describing the building of the hall says to King Janamejaya, the great-grandson of Arjuna:

“The hall, which has solid golden pillars, great king, measured ten thousand cubits in circumference. Radiant and divine, it had a superb colour like the fire, or the sun, or the moon. Challenging as

it were with its splendour the luminous splendour of the sun, it shone divinely forth, as though on fire, with divine effulgence. It stood covering the sky like a mountain or monsoon cloud, long, wide, smooth, faultless, and dispelled fatigue. Made with the best materials, garlanded with gem-encrusted walls, filled with precious stones and treasures, it was built well by that Viswakarma...”

(Translated by J.A.B.van Buitenen)

Of course this could only be the supreme imagination of the poet. How can one compare the lowly Painted Gray Ware with the gold, gems, precious stones and treasures mentioned in the epic?

The adjoining satellite city of Gurgaon is really ‘Gurugram’ (the village of the Guru—that is, Dronacharya who was the guru or master of the Pandavas and Kauravas of the Mahabharata story). The five villages that the Kauravas refused to hand-over to the Pandavas as Lord Krishna tried to avert the Mahabharata war through mediation, are all around Delhi, one being Inderpat (Indraprastha) the village having been in existence till late 19th century at the site of the above-mentioned excavations south of Delhi’s Purana Quila(Ancient Fort) area( a deep depression marks the site as seen from the fort walls), and all the others existing today— Sonapat, Panipat, Tilapat, and Bhagpat. Kurukhetra, the battlefield of the Mahabharata war, is only a short distance away from Delhi. P G W of the same type found in Indrapastha was also found in Panipat, Bhagpat, Kurukshetra and Hastinapur(the capital of the Kauravas,106 kilometres north-west of Delhi), proving that similar material culture existed in the Mahabharata-related sites. Mathura, the birth-place of Lord Krishna, the 8th incarnation of Lord Vishnu and the main player in the

*Mahabharata*, is around 80 kilometres south-east, on the banks of the Yamuna. Vrindavan, his childhood haunt, is a few kilometres further across the river.

Delhi and its surrounding areas are thus shrouded in myth and legend dating back to India's greatest epics. Legend has it that Maharaja Agrasen, a contemporary of Lord Krishna, is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Indrapastha. Agrasen ki Baoli (Agrasen's stepped-well) is seen even today in Central Delhi, off Barakhamba Road (so named because of the 'Barah Khamba,' or twelve pillars, looking amazingly new, but nearly 1500 old) near the United States Education Foundation in India. So, the account in *Mahabharata* of the building of Indrapastha by the Pandavas, (at the site of the Khandava forest which was given to them as a measly share in the partition of the kingdom by their paternal uncle Dhritarashtra), seems to have a combined mythological,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basis.

From these mythical beginnings in hoary antiquity, we hear of Delhi in historical times first as a place chosen by Emperor Ashoka (304-232 BC) to inscribe a rock edict (on Raja Dhir Singh Road, near the ISKCON Temple) meant for common folk, rich and powerful men and even foreigners alike, implying that Delhi then was a centre inhabited by all these types of people. The next relic is the famous Iron Pillar of the Gupta Period (300-600 AD) that now stands in front of the Quwwat ul Islam Mosque adjoining Qutb Minar.

The second city of Delhi, Lal Kot (Red Fortress), is reputed to have been founded around the 8th century AD by the Tomar king Anangapal in south Delhi where the Qutb Minar stands today. In the 12th century AD, Prithviraj Chauhan, the Rajput king, made his capital Qila Rai Pithora, upon the remains of Lal Kot, the outer walls

of which are still visible. The Afghan invader Muhammad Ghouri defeated Prithviraj in battle and conquered most of Northern India aided principally by his Turkic slave and commander in chief Qutbuddin Aibak; Ghouri's conquering armies reached up to Bengal in the east, thus inaugurating the waves of invasions of northern India by the Islamic forces in successive centuries, resulting in the nearly 650-year-long Muslim rule of important regions of the country by different dynasties of foreign origin.

Qutbuddin Aibak became the Sultan of Delhi, founded the Slave Dynasty, built and developed the third city of Delhi, Mehrauli, in the wider area around towards the end of 12th century. He also built his victory tower Qutb Minar naming it after the great Sufi saint Hazrat Khwaja Qutbuddin Bakhtiar Kaki. He had built here Quwwatul Islam mosque, the first in north India, with the remnants of Hindu temples in the vicinity he had demolished—the bas-reliefs with different deities with their heads in horizontal positions on stone slabs that were formerly pillars of temples, can be seen. Hassan Nizami, Qutbuddin's biographer writes: "Qutbuddin built the Jami Masjid at Delhi and adorned it with the stones and gold obtained from the temples which had been demolished by elephants, and covered it with inscriptions in Toghra, containing the divine commands."

The fourth city, Siri, was built by Allaudin Khilji in 1303, extensive remains of which are seen standing near the Asiad Village area.

The fifth city, Tughlaqabad, was built to the south of the present day Delhi, by Ghiyasuddin Tughlaq (1321-1325). Muhammad bin Tughlaq (1325-1351), his son, enhanced the capital area and fortified it to an incredible degree to protect it from sporadic attacks by the



Mongols, by enclosing all the existing built up structures of the previous cities in south Delhi(Siri, Qila Rai Pithora and Mehrauli) together, with tall and thick walls (remnants still extant measure more than three metres across), and called it Jahanpana(Refuge of the World).

Firozeshahbad, the sixth city built by Firozeshah Tughlaq(1351-1388), extended from Mehrauli eastwards to the Yamuna, and from the Ancient Fort northwards to the heart of present-day Shahjahanabad. Firozeshah built his citadel, Firozeshah Kotla, at the heart of this city.

Though smaller in size, Humayun had built his Dinpanah and Shershah Suri who vanquished him built Shergah, at the site of an existing fort in ruins, which now constitute the complex of Purana Qila(Ancient Fort).

The Lodis(1451-1526) who immediately preceded the Mughals, had built their own building complexes which formed a minor city, of which only the magnificent Lodi Tombs in Lodi Gardens and a few mosques survive.

The seventh city, Shahjahanabad, built by the famous builder of the Taj Mahal, the glorious Mughal emperor Shahjahan, along the banks of the Yamuna, is located five kilometres north of the Ancient Fort.

New Delhi is the current eighth city which was founded by the British in 1911, restoring Delhi as the capital of India, shifting it from Calcutta.



All these cities are entwined in myths and legends related to their founding, even New Delhi. One of the favourites is that whoever builds a new city of Delhi is not destined to rule there long, the latest case being that of the British! There are also legends about the inauspicious foundation stones of New Delhi being hidden by the equally superstitious British.

\*

Where do my memories of Delhi begin? Probably from my earliest days, aged around two or three, when news of my paternal uncle in the army, Kuttippappen, would be broached by my mother in our solitary hut in Mechal, the tiny hamlet up in the eastern mountains of Central Kerala, where I spent the first ten years of my life. Delhi was very much the locale of many of his narrations, when he came on leave, and had me as his captive audience. My passion for history, historical places and events has its origin in the interest he instilled in me.

Then in my lower primary classes I read the story of Taj Mahal, about the unparalleled beauty of the white marble monument, and its builder Emperor Shahjahan. In those days I also read about other pieces of wonderful Mughal architecture in and around Delhi, and my intense desire to visit Delhi grew. But it was not until I was 43, that I got an opportunity to visit Delhi, in 1995. The first visit in November, with looming mist and pollution-ridden smog along with the bone-chilling cold shrouding the city put me off completely on first impact. My second visit was in January 1997 for an interview in Sahitya Akademi(The National Academy of Letters,

India). That one confirmed my discomfiture with the city. During my four-month-long trip abroad in US, UK and Europe from March to July that year, I declared to my friends that I will never again set foot in that city. But Ironically I had to eat my own words when I was appointed with *Indian Literature* of Sahitya Akademi in October the same year. Thus began my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e city, which finds reflection and final resolution in my poem “Delhi-1995-2010.”

On these two initial visits, the first sight that one got from the train as it approached New Delhi Station, was the Pragati Maidan pavilions, and crowning the skyline behind them, the high dome of the Supreme Court of India. Once you got out of the train, and took an autorickshaw to move into New Delhi area, you invariably come upon the circular road around the iconic century-old colonial market complex Connaught Place’s Outer Circle, now named Indira Chowk (or Indira Street, named after the assassinated Prime Minister). The inner circular road that ran around the centre of the circular market, is named Rajiv Chowk(named after Rajiv Gandhi, the assassinated former Prime Minister and son of Indira Gandhi.)

This historic heart of New Delhi houses, besides posh shops and eateries, many art galleries and cultural associations. Its door Number M-13 is that of Kerala Club, on the first floor. This is where the famed Keralite fiction-writers who successively over the last seven decades narrated Delhi—like O.V. Vijayan, Kakkanadan, M.Mukundan, Paul Zacharia, V.K.N., M.P.Narayana Pillai, Anand, Sethu, Unnikrishnan Thiruvazhiyodu and others—used to frequent for weekly meetings of the Sahiteesakhyaam (Literary Friends’ Circle) where they read each others’ works aloud, held discussions that



would often turn into virulent attacks on the flawed ones and unabashed praise on the good ones. This was the 'school' where they met, debated and shared, producing the golden years of Malayalam fiction. Of these, only Mukundan and Anand stay actively on the scene. Others like Paul Zacharia and Sethu have gone back and settled in Kerala. Vijayan, Kakkanadan, V.K.N and M.P.Narayana Pillai have passed away. The Delhi narrated by them remains. Through all these years, a premier playwright held the helmsmanship of Kerala Club—Professor Omchery N.N.Pillai, who has lived in Delhi for the last six decades, and has a wealth of experience and sensitive memories of the city and its Malayalam writers. At age 87, he still briskly climbs the narrow wooden stairs to the Club every Friday evening to lead the Sahiteesakhyam debates, like he had been doing for decades together!

Soon after I settled down in Delhi, I came upon a copy of *The City of Djinnns* by William Dalrymple, which left me breathless. I knew Delhi was a city of monuments and tombs, and a living remnant of antiquity, but the awareness that I am living right in the middle of it all changed my first impression of the city completely. The eager historian and archaeologist in me woke up. I began to make almost daily visits to the ruins and monuments, identifying them, inspecting them closely and trying to date their origins. I visited all the above-described sites of the cities of Delhi.

When my daughter got admission in The Mother's International School on Aurobindo Marg, little did I know that the school was situated more or less on the spot where the outer entrance of the palace of Muhammad bin Tughlaq was, where on a stone platform, several persons were executed on a daily basis, by having their

heads crushed by an elephant and the emperor would watch it from the top balcony of his palace Vijay Mandal,(as reported in his *Travels* by the great medieval traveller and once the sultan's Qadi or Chief Judge, Ibn Batuta —who had, incidentally, passed through Ajdabiya, my Libyan city, on his travel eastward, and who hailed from Morocco, a neighbouring country, and belonged to Lawati, one of the common Berber tribes here) which lay further inside to the east, now surrounded by residential complexes. I would often walk my daughter to the school, crossing Malviya Nagar and Shivalik residential areas, and passing by the Begumpur Mosque, one of the biggest in the medieval world.

A kilometre east of the school was Haus Khaz, the giant medieval water-supply complex developed by Firoz Shah Tugalq and a large Muslim seminary where students from faraway places like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ould frequent. Firozeshah's Tomb is situated here. Five kilometres east, down the same road, was the famous Tomb of Safdarjug, the Wazir or Prime Minister of the Mughal Empire under Emperor Ahmed Shah Bahadur, just a couple of kilometres short of the spot where Mahatma Gandhi was shot dead, and almost equidistant from No.1, Safdarjung Road where Indira Gandhi was assassinated; adjacent to the tomb was the mini-airport where Indira's son Sanjay Gandhi had met his death in a light-plane crash.

Sahitya Akademi where I worked was situated at the Mandi House Roundabout in Central Delhi, near the Supreme Court and not far from the Purana Qila (Ancient Fort), adjoining which was the site of the ancient Indraprashtra.

One of the first sites I visited was Purana Quila(Ancient Fort),

which was first built by a Tomar king, but later reconstructed by Sher Shah Suri, who had defeated the second Mughal emperor Humayun in battle, who had to flee to Persia and roam around for twelve years (during which time his son Jalaluddin Muhammad—later to become ‘Akbar the Great’—was born) waiting for his chance to recapture the city and the empire, which he succeeded to accomplish only upon Sher Shah’s death by natural causes. Sher Shah had done the reconstruction with stones he removed from the Siri Fort. Humayun completed the work, and would spend time in the fort. Once when Humayun was on his death bed owing to some mysterious illness, his father Babur, the founder of the Mughal Dynasty, had prayed to Allah fervently, to transfer that illness to himself and save his son and heir. Exactly that’s what happened, and Humayun lived to rule India, though his intellect was clouded by opiate delusions most of the time. Humayun fell to his death on the spiral stairs of the octagonal library building, which is still preserved in good condition within the Fort Complex, which I visited along with my daughter.

Just outside the fort walls to the east is the ancient Bhairav temple, where the most favoured offering to the deity is liquor of all sorts—ranging from most expensive Scotch Whiskies to the lowly country brew, depending on the financial capacity, and the urgency of the devotee! Other devotees can partake of the ‘prasad’ or left-over offering as a token of divine blessing, and drink to one’s glut!

Humayun’s Tomb, which is about two kilometres to the south-east, is a fascinating monument, which served as the main model for the Taj Mahal, built about 80 years later. Some believe this

building is even more beautiful than the Taj Mahal. It was here that Major Hodson of ‘Hodson’s Horse’ captured the last Mughal Emperor and the famed Urdu poet Bahadur Shah ‘Zafar’ and his two sons, who had sought refuge here as the British crushed the First War of Independence in 1857.

Adjacent to Humayun’s tomb, to the west, is the famous tomb-shrine (dargah) of the Sufi Saint Hazrat Nizamuddin Aulia, spiritual brother of Hazrat Qutbuddin Baktiar Kaki. The locality is also now named after the saint. One of Delhi’s three famous railway stations is here. The saint was a contemporary of Giasuddin Tughlaq and also his son Muhammad bin Tughlaq. Hazrat Nizamuddin had quietly defied the temporal authority when Sultan Muhammad had tried to impose his will on the saint. In the ensuing confrontation, the saint is said to have cursed the Sultan so that Delhi was devoid of water supply, prompting him to shift his capital along with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ir possessions, to Daulatabad in central India. (Another reason that Ibn Batuta states in his *Travels* is that the residents would write anonymous letters cursing and insulting the Sultan and would throw them inside the palace walls in the dead of night.) The saint would only eat half a chapatti once a week, and if a hungry person went by he would even give that away.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belonging to all faiths, but predominantly those with Sufi leanings, frequent the saint’s shrine even today, on wish-fulfilling missions. For the last 800 years, the saint is a living presence in the shrine. The legendary Sufi poet Amir Khusrau, Shahjahan’s daughter Jahanara who was a staunch Sufi and Mirza Azadulla Khan Ghalib, the great Urdu poet, lie buried within this shrine complex. The many visits I made there, especially during late nights on Thursdays



to listen to the Qawwali singing, when dervishes would sometimes whirl as the music reaches its crescendo, is memorable. The taste of a late night dinner consisting of battoora and mutton curry still lingers on the tongue!

Nizamuddin is also famous for its Mughalai restaurants like Karims. It was here, on the evening of September 11, 2001, when I had taken my 10-year-old daughter for a dinner of the 'special' mutton biryani, that we overheard people speaking of a horrid terrorist attack on World Trade Centre, which the simplistic commoners believed was the one on Barakhamba Road (Indeed we have a World Trade Centre there too!). But a glimpse at the TV set installed high up on the wall told me a different story. I could see the Twin Towers which I had visited in April 1997, billowing smoke and flames and collapsing in a matter of minutes. We had hurried back home, with the foreboding of a kind of world coming to an end! That night and the next week almost, I did not move away from in front of the TV, shifting my eyes only to read the banner headlines and the different accounts related to the catastrophic tragedy that shattered the existing world order to smithereens!

Straight south from this island of spiritual bliss, about four kilometres away, is another haven of peace. The Lotus Temple in South Delhi, quite near to where the rock-edict of Emperor Ashoka is situated, is a magnificent modern structure built in white marble, in the shape of a just-begun-to bloom lotus-bud. This is the place of worship of the Baha'is. The peace and tranquility of the sprawling, green parks around the temple, give you a taste of what is to come once you step in. It is an incredibly serene place, specially designed for meditation. People of any faith can step in

there during daytimes and pray silently or meditate, or just enjoy the peace. Around my travels around the world, this is just one place I always remember first!

On the way to the Red Fort from the Ancient Fort, almost two kilometres short of it, is the Firozeshah Kotla, or the Fort of Firozeshah Tughlaq from where this cousin of Muhammad bin Tughlaq had ruled the country. Most of the Kotla is standing even today. The place is well-known throughout the country and even abroad for an altogether different reason—the famous International Cricket Stadium of Delhi is housed here! But, on Muharram day, as night descends, there is an amazing and even surreal sight. Women clad in black materialize as if from nowhere, and mourn the martyrdom of the Holy Prophet Muhammad's grandsons Hassan and Hussain, the same day as in Karbala (very near to the Safdarjung's Tomb in Delhi, and also in the original Karbala in Iraq, where the actual martyrdom took place). As Upinder Singh (famous historian and the daughter of the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writes in her essay "Discovering the Ancient in Modern Delhi" (*Celebrating Delhi*, Ed. Mala Dayal, Penguin India), the walls of the three-storey structure on top of which the Ashokan Pillar stands (Firozeshah had brought this over from Topra Village in Haryana), would be stuck with written supplications of devotees addressed to Kotwali Baba or Dada Miyan. This part is also believed to be inhabited by many djinns (unearthly being created from fire, according to Islamic belief), and the most important one is 'Lat-wale-Baba' (Baba of the Pillar).

Opposite the Kotla is Khooni Darwaza or the Murder Gate, which used to be a Gateway in existence prior to the Delhi Gate (a few hundred metres further down the road, one of the fort of Shahjahanabad

with seventeen gates.) Khooni Darwaza got its name from the number of people put to death by hanging from its ramparts, the latest being the defeated Indian freedom fighters hung by the British in 1857, including the Mughal Emperor Bahadur Shah Zafar's two sons. Barely half a kilometre west of the Delhi Gate is the Turkman Gate, made infamous by the incident in which the extensive slum area surrounding it, and hundreds of years-old heritage structures belonging to Muslims, were forcibly evicted and cleared by Sanjay Gandhi, Indira Gandhi's second son, who also inflicted forced sterilization on the male population here during the Emergency from June 1975 to February 1977.

North of the Red Fort area lies the first British settlement of Delhi, with the imposing St. James Church, and other early colonial buildings, with roads, streets and localities still bearing British names such as Civil Lines, Lothian Road, Kingsway Camp, Outram Lines, Coronation Park etc. The Delhi University is situated here. M. Mukundan's story, "Remembering a River," is located somewhere here. A visit to St. James Church early in my residence in the city brought mixed memories of colonization, with colourful characters like William Frazer (a great-granduncle of Olivia Frazer, William Dalrymple's wife) trying to merge with the Indian culture, the First War of Independence and its bloody aftermath. Older memories too surged in my mind, of the conquerors of Delhi like Timur the Lame (Tamerlane the Great), the ancestor of the Mughals, who had encamped atop the Cenotaph Hill here and stood watching his soldiers killing, plundering and pillaging in the plains below, in the world's most prosperous city of that time, for three days and nights in 1399. In a single day, 100,000 had been beheaded! We read in his

*Mal'uzat-i-Timuri*, thus: "Excepting the quarter of the Sayyids, the ulama and the other Mussalmans, the whole city was sacked. The pen of fate had written down this destiny for the people of this city. Although I was desirous of sparing them I could not succeed, for it was the will of God that this calamity should fall upon the city... All the three cities of Delhi, by name Siri, Jahanpana and Old Delhi (Mehrauli), had been plundered...."

Nadir Shah, the Persian emperor who sacked Delhi in a similar fashion in 1739 had put to death 30000 residents of Shajahanabad on a single day (22 March, 1739). The canal that ran through the middle of Chandni Chowk, or Moonlight Square (but actually a street, and the biggest shopping avenue of the world then) leading north from the Lahori Gate (the main gate) of the Red Fort, flowed with human blood for days on end during his three-month occupation of the city from early February to early May, 1739! He then made off with the fabulous Peacock Throne of Emperor Shajahan and the priceless diamonds Koh-i-noor and Darya-e-noor (Kohinoor had ultimately found its way to the imperial crown of Great Britain, where it still is.) It could be after this desolation of this city that Meer Taqi Meer (1723-1810), the greatest Urdu poet of all times, wrote this poem on Delhi, which Khushwant Singh has translated.

There Once Was a Fair City

You men of these eastern regions  
Knowing my beggarly state you mock me;  
You snigger amongst yourselves and ask me  
Where on earth can you have come from?

Let me tell you!

There was once a fair city,

Among the cities of the world the first in fame;

It hath been ruined and laid desolate

To that city I belong, Delhi is its name.

The First War of Independence which the British colonialists succeeded to crush, had resulted in the death of hundreds of thousands in Shajahanabad itself and other parts of Delhi. The great Urdu poet Ghalib wrote, “In front of me/ I see today rivers of blood.” He describes how the victorious British went, “killing everyone in sight/looting people’s property as they advanced.”

Blood had indeed flown in Delhi continuously from the Mahabharata times onward!

It was only much later that I was able to visit the Red Fort, the fortified palace complex Shajahan built in his capital Shajahanabad, which, along with the Taj Mahal, has been described so much, by so many, that it does not merit a repetition here. The empty eye-socket like holes left by plucked out, enormously sized semi-precious stones along the walls of the Diwan-e-Aam (Hall of Public Audience) and Diwan-e-Khas (Hall of Audience for Important People), the two most important parts of the palace complex of the great Mughals, speak volumes for the plunder, first by Nadir Shah in 1739 and later, by the victorious British soldiers who went on a rampage killing and plundering and demolishing exquisite palaces and buildings in the complex in 1857, besides the horrid-looking barrack-lines built right across the spacious lawns of the beautiful palaces telling the story of brutal imperialism. (It was ironical that the

Indian Army had been occupying the same barracks until just a few years ago!)

Within Shajahanabad, the Darya Ganj (or Riverside Market, making its proximity to the banks of the river Yamuna evident—in fact the river flowed right at the door-steps of the Red Fort. The British had diverted its course following the War of 1857) down the Delhi Gate, is famous as the Mecca of Indian Publishing Industry, a far cry from Paju Book City, though, in the scale of planning, condition of buildings (whereas in Paju the buildings are all planned and modern, in Darya Ganj, the buildings are crumbling old structures). Darya Ganj is the latest addition to the ‘Old Delhi’ (known as ‘the city’ or *shahar* as distinct from New Delhi, which was completed just around 1939, almost 73 years ago!). The buildings are mostly 19th and early 20th century structures in front areas, while the interiors are all Mughal havelis and even older buildings. M. Mukundan’s story, “The Driver” has most of its locale in this area. Every Sunday, the pavements and shut shop-fronts are filled with makeshift stalls of used books—the largest ever collection of books I have seen, much bigger than the used books section in the Strand.

The Juma Masjid, the biggest mosque in the world, built by Shajahan, is right opposite the Red Fort. The gallis (narrow walkways between rows of tall buildings) that lead down from the Juma Masjid, on the left side of Chandni Chowk, are flanked by old havelis of Mughal aristocrats, now crumbling. Mostly of woodwork, these intricately carved and ornate structures seem to cry voicelessly, pondering over a glorious past now lost. The millions of people who live here as if huddled together, (as efficiently captured in the film *Delhi-6*), are evidently in another world, when



compared to the people who live in the New Delhi in spacious houses. The divide has now been somewhat bridged by the advent of the metro-rail.

\*

One of those initial days of our settling down in South Delhi, my wife and I, along with our little daughter, visited before dawn, the Nili Chhatri Shiva temple believed to have been founded by the Pandavas immediately after the Mahabharata war. As we descended the stairs leading down to the Yamuna from the temple, and just adjacent to the great cremation ground Nigambodh Ghat, we saw one of the rarest sights anyone could ever witness — an ageless yogi, a sadhu whose face shone like the rising sun, in the act of tying his jata(dreadlocks) after a ritual bath in the river before dawn, ascending the stairs, and disappearing before our very eyes! The only thing that I remember now is that his body was pale-golden, and the droplets dripping off his jata had scattered all around.

The next esoteric meeting was with Nirmal Guruji, a young science graduate who had realized that he is an avatar of Lord Shiva in his Agni (Fire) manifestation, and had done tapasya without eating or drinking for months and years on end, at the end of which he began to give darshan to devotees. On all the occasions when we visited his ashram in South-Delhi, there were high-ranking army officers, police officers, senior members of the Civil Service, ministers and other VIPs present. What struck me was the guru wouldn't speak much; his attendants saw to it that all present would partake of the simple chapatti and vegetable curry which

devotees had submitted as offering. The guruji would not accept any money as offering. His presence radiated so much energy that people had just to be present there, and silently visualize their needs. The rising numbers day by day confirmed the belief that the guruji would have blessed them with solutions for their problems. Then one day he stopped the darshan. Soon we heard that he had attained Mahasamadhi, after leaving the message that he would be reborn soon.

Another such guruji we visited was Virsa Singh Babaji near Mehrauli in south Delhi. He belonged to the Sikh religion, but had established his own sect, and a particular strain of a belief system. He was famed to have had visions of Jesus Christ and similar incarnations (there were statues in the compound to mark the spots where he had such visions.) He too attained Samadhi soon.

Sri Mata Amritanandamayi Devi, the famous 'hugging saint' who is originally from Kerala and whose Delhi ashram is in the D3 Section of Vasant Kunj drew us every year from 1998 onwards. Whenever 'Amma'(Mother, as she is called by devotees) was in the Ashram yearly once, we would be there for the satsang.

\*

My initial fervour for exploration of historical sites somewhat quenched within the first few months of the residence in the city in 1998, I fell into the routine of work and back home. But those were hard times for Delhi residents. Pollution was rampant, especially air pollution owing to vehicular emission. Delhi was rated as one of the most polluted cities in the world then. Waiting for a bus at I.T.O

junction for ten minutes would result in black soot being gathered in the nostrils, clogging them! Reaching home, shirt collars and sleeves would be black with grime. Moreover, the unruly 'Blueline' and 'Redline' private buses used for commuting in the city, would kill hundreds of people monthly, over nearly a decade!

Things began to change drastically for the better with the introduction of buses run on CNG, by a Supreme Court order. A spate of other SC orders followed, to keep the new arrangement in place, and phasing out the buses run on diesel. The next step was nationalizing all the private bus routes, thus eliminating the Blueline and the Redline, facing stiff opposition from the owners. However, the government prevailed, and the Chief Minister, Mrs. Sheila Dixit, who is into her third term now for the good work done, was credited with doing the impossible. By 2002, pollution levels had dropped to consoling low levels. Delhi vistas, obscured by smog in winter, began to shine once again in the faint afternoon sun. With hundreds of flyovers built, the smooth flow of traffic ensured lesser emissions.

Following the CNG revolution, came the metro-rail revolution. Delhi Metro Rail Corporation (DMRC), under the selfless and able helmsmanship of Mr. E.Sreedharan, a fellow Keralite, kept the record of completing the bevy of metro corridor projects over a decade, ahead of schedules. The metro coaches were imported from South Korea. By 2004 December, the first line was operational, for 26 kilometres. Soon succeeding projects saw the spread of the metro network to all parts of the city, covering now nearly 200 kilometres. For the first time, Old Delhi was connected with New Delhi. During the initial few years of my residence in

Delhi, travelling from the south to the northern parts(the old city), was a task involving several hours, and change of mode of transport from bus to cycle rickshaws. Now, with the metro, it was a matter of 10 to 15 minutes! Even purdah-clad Muslim women, who never used to venture out of the confines of their homes, began to boldly board the metro and go about anywhere they liked. These changes in the lifestyles of the residents of the old city are effectively captured in the film *Delhi-6*.

The modernization of the airport was the latest in Delhi's improvements. It is now the World's 2nd best and 5th largest International Airport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

The extremely hot summers and cold winters of Delhi make it less hospitable than most other Indian metropolises. My first experience of Delhi's summer heat was the real ordeal or test by fire that I had to endure, to prove that I am a true son of Delhi. The summer of 1998 was one of the hottest and the longest. Temperatures soared to 47 degrees Celsius around June. The means to beat the heat were rustic and rudimentary. Drink Aam ka Panna (water in which raw mango is boiled, and cooled) and keep a peeled onion under your armpit when you are out in the sun even briefly. Amazingly, it worked. Many poor people die of sunstroke. Also, during winter, when a cold wave sweeps through plunging temperatures near zero, many poor people die due to exposure to the cold. So, the saying that one who has successfully passed a Delhi winter and summer is a worthy denizen of the great city

came true in my case. I was christened a Delhiite by the middle of 1998!

In 2001, we shifted residence to the north-west of Delhi, to Inderpuri, where my family has been for the past eleven years. It is a peaceful area, largely pollution-free, with the Ridge Forest in the background and a 6000-acre, vegetation-filled compound of the Indian Agriculture Institute (Pusa Institute) opposite, where I can go far a five-kilometre walk early in the morning, watching scores of peacocks dance, peahens preen their feathers, and the tawny chicks run about, the overgrowing tree-foliage, creepers and bird-chirping adding to the atmosphere.

The bustling Paharganj area, west of the New Delhi Railway Station, is a microcosm of the city. All types of cheap lodging facilities attract thousands of low-budget foreign tourists (some of them junkies) to this area, with its attendant problems like drugs, prostitution etc. Together with all this, life goes on here at a feverish pace. The film, *Dev-D* catches the pulse of the fast life here.

Beyond Paharganj, almost on three sides of it, is the vast, sprawling market-cum-residential district of Karolbagh. Scene of one of the worst bomb blast series in 2008, Karol Bagh recovered its brisk business pace in no time, though licking its wounds.

\*

New Delhi was designed to show off the might of the British Raj, and to house the highly stratified bureaucracy. Life moved at a snail's pace even in the 1950s and 60s as Professor Omchery remembers. Compared to the bustle of Bombay, Delhi was really

provincial. Then came Indira Gandhi's reign, the victory in the 1971 War with Pakistan for the liberation of Bangladesh, the dark months of the Emergency (when India was virtually under Indira Gandhi's dictatorship), Indira's election defeat, and her second coming in 1980. The Asiad of 1982 which Delhi hosted changed the city's face. The southern extremities of the city were expanded on a gigantic scale, and new roads, flyovers and high-rise buildings transformed it almost overnight into a metropolis.

With the economic liberalisation that began in the 1990s, expansion of the city almost doubl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and in the last one decade itself, it has further developed at a very rapid pace, spilling out to the National Capital Region, with satellite cities like Gurgaon, Noida, Faridabad etc., coming up rapidly .

\*

Everyone in Delhi finds one work or the other, and is very industrious. Delhi is famous as the place of Rajoguna, which makes people act zealously in whatever they engage in. Rajas is the second of the three gunas or qualities the Ego has, according to Hindu belief—the other two being Satva and Tamas. Satva makes people placid, with the ability to experience truth right away. Tamas keeps them inert, and sometimes malevolent. It is said that Vaastu (the Indian version of Feng Shui) is redundant within Delhi, as the whole place is auspicious for building structures! Be that as it may, Delhi being the place of Rajas is borne out by the fact that even the laziest person coming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feel urged to work hard and earn his/her living once he/she becomes a Delhiite!



The rich-poor divide is sickeningly evident in the city. The sight of little children, mostly little girls in tattered skirts and grimy blouses, with a toddler-sibling saddled on their hips, dodging the flashing cars and coming over to a traffic red light where the drivers of the held-up cars have rolled up their windows, impervious to the little fists pounding on them for alms, and an occasional old misanthropist hurling curses from the car at the hapless young ones, would turn one's stomach. So is the sight of the hundreds of homeless people huddling under the flyovers during bitterly cold winter months. The magic figure of two-digit growth index pontificated by the country's top politicians ring hollow at such sights. The country's wealth is in the hands of less than 3%. Whatever has happened to the promise of percolation of wealth to the grassroots, promised by the proponents of free market in the early 1990s as the Liberalization drive was on, is anybody's guess. In a country of 2.21 billion, the national capital with such ostensible rich-poor gulf demonstrates the state of affairs the country is currently in. Any amount of rhetoric or proclamations will not bridge this gap. Corruption as a way of life in the society, is like a cancerous growth taken for granted. All this, coupled with a poor public distribution system, with millions being displaced nationwide as mega industrial projects appropriate lands owned by them for centuries crowding into India's cities in search of livelihood, with Delhi taking a lion's share of them, complicate matters on a daily basis. The well-meaning Chief Minister of Delhi often throws up her hands in helplessness. But the problem continues to grow.

Of the cities of the world I have seen, it is New York City, with a

lot more order and systems in place, yet with definitely much more crime rate and violence, which is the easiest comparison that comes to mind. New York is the world in microcosm, whereas Delhi is a mini India. People from all the 28 states and 7 territories administered by the Union of India, speaking all the 24 national languages (many of them more than a 1000 years old and having rich literatures), and an equal number or more sub-national languages, live in this National Capital, and get along wonderfully well. The daily influx of people from all parts of the country and even the sub-continent, keeps the culture mix of the city on a daily flux, changing its cultural character by the day. It is a wide river of multiculturalism with individual streams of languages and cultures joining together yet eminently striving to keep their own cultural identities intact, unlike the American notion of the melting pot producing one soup. Delhi showcases the motto of the current culture of India—unity in diversity. Though we are of so many different sub-nationalities, Delhi encompasses everything, and a spirit of patriotism is highly visible in the capital especially on national holidays like the Republic Day.

Civic awareness and a sense of ownership of the city was absent in the average Delhiite until recently, unlike in Mumbai, where people have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Over the last fifteen years, there has been a positive change perceptible—some high profile murder cases, the Uphaar fire tragedy that claimed more than a hundred lives owing to the fault of the building owner, and several other public-interest cases, all of which were suppressed owing to political clout and corruption in high places, had been re-opened and the high and mighty culprits punished by the court

some years ago, as a result of citizens coming together and clamouring for justice. Since then, public issues are highlighted and people come together for justice and fairness, and the authorities are forced to take action. The latest in this line is the anti-corruption campaign led by Anna Hazare.

\*

Life in Delhi is lived from moment to moment, literally, from one “high alert” security operation to another. One doesn’t know when or where a bomb will go off.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omb the surging millions on a daily basis; frisking and X-raying of baggage and personal effects are carried out meticulously at airports, metro-stations and now, at railway stations, and in most of the cinemas, public halls, malls, and even in iconic restaurants. But that doesn’t solve the problem of a possible explosive-laden man or woman walking around in a crowded market-place for instance. Most of the bomb blasts in Delhi over the past 15 years during which I have been a resident there, have taken place in crowded markets, except the ones around Connaught Place and its Central Park in 2008. When I come to Korea, or to Libya, my jaws slacken at the airport exit and entry points. No one frisks you; nor do you feel the palpable terror in the air that you feel in Delhi where every frisking is a constant reminder that you are in dangerous territory. It is true that people have grown used to it, and have taken it in their stride, but living on the edge all the time can have long-term adverse psychological effects, especially in young people. It’s also a fact that in many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in the US, security

checks reach paranoid levels; but to feel the same at home in Delhi somehow seems absurd. The starkness of it all, the utter impossibility of a return to earlier, easier times is reflected in my poem-series, “Terror Sequence.”

The time when the neighbouring nuclear power and India came to the brink of Armageddon, when the Indian Parliament was attacked by assailants with suspected bases there, is a reminder that a wrong move by either side will end in nuclear war. With a perpetually unstable political system, the neighbour too is under constant pressure. Every Delhiite seems to take the threat of annihilation personally, with Lahore and Islamabad just a few hundred kilometres away—so much more than the old American obsession with Soviet nuclear missiles. Even the lowliest citizen is sorely aware of the barest details of the nuclear threat, though of late, during the past few years, it is waning, following the peace efforts on both sides. But those years we lived through impending doom is still live in my memory.

\*

Holi, a festival of colours with revellers totally free to splash various dyes on others and passersby and the ‘victims’ taking it sportingly, without cribbing or complaining and joining the fun, is a sight to see. The other festival is Deepavali, the festival of light, during which earthen lamps in their millions are lit, and fireworks light up the sky. This festival is a reminder of the essential unity of the community. Holi is celebrated all over north India, whereas Deepavali is celebrated almost all over the country. Both these

festivals are celebrated in Delhi with great gusto.

Luminous sunrises and golden sunsets greet you throughout the year, except during brief intervals of the monsoon in July–August, and the height of the smogged out winter in December–January. In August, around the Independence Day on August 15th, the entire city–sky will be filled with kites, with all classes, age groups and sexes flying kites from rooftops...a colour-filled, kaleidoscopic view of the sky greets one. The dhol drum beating for all occasions, political rallies, jagaran(devotional vigil), barat(marriage procession) and what not...singing of devotional songs and rural dittie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by women...the myriad festivals round the year, celebrated with fanfare. The New Delhi area in spring, summer and autumn in flowers and fruits in the various avenue trees planted by the planners...smell of ripe jamun fruit carpeting the sidewalks...the neem fruits emitting a sanitising smell...the bakul and the mahua flowers' maddeningly intoxicating smell...The skyline with very few sky-scrapers unlike in Mumbai. The neatly built housing complexes...the green, green expanses...Delhi is one of the greenest capitals of the world, with reserve forests right in the heart of the city. Delhi is much more cleaner than many Indian cities...the sense of space makes for easy breathing, unlike in Mumbai where narrow streets are hemmed in by tall buildings making you feel claustrophobic. Delhi is home to a variety of cuisines over a millennium now, with different peoples from Turkey, Persia and Central Asian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arriving and settling here; as it grew into a national capital, cuisine from all over India, more than 50 distinct varieties, have been established here. Needless to say, in present-day Delhi, restaurants with cuisine fr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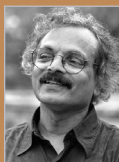
all over the world cater to cosmopolitan clientele.

\*

Let me end with an interesting detail: Seoul is the first in the list of sister cities of Delhi around the world!



# 운전사



**M. 무넌** 194년 프랑스 통치하의 마히에서 태어났고, 뉴델리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했다. 단편선집 열 권, 장편소설 열다섯 권, 중편선과 비평집 각 한 권씩을 발표했다. 케랄라 사히타 아카데미상, 옴피 폴 상, 무타후 바르키 상, 중앙 사히타 아카데미 상, 엔비 푸라스카람, 그리고 199년 크로스워드 상과 프랑스 정부에서 주는 인문기사 훈장을 받았다.

바로 그날 아침부터 무엇인가 달라졌다. 그 때문에 상카란 나이르는 자신의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팔다리가 그런 식으로 반항한 것은 처음이었다.

오늘도 상카란 나이르는 새벽 다섯 시에 깼다. 잠에서 깨는 일은 강 건너 기슭으로 헤엄을 치는 것과 같았다. 그에게 잠은 언제나 범람하는 강이다. 그는 알람시계가 없어도 된다. 새벽 다섯 시 정각이면 머릿속에서 수탉이 울기 때문이다. 헤엄을 치고 나서 지친 사람이 기슭 어딘가에 매달려 두리번거리듯, 상카란 나이르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누운 채 뜰을 바라보았다. 석탄 오븐 연기에 까매진 나무 창살 사이로 차풀나무가 보였다. 나무는 어둠을 떨어내듯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떠 그물 침상에 누운 채로 자기 몸에게 명령을 했다.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오른팔로 짚고 일어나라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처럼 누운 채로 꿈쩍도 않고 버텼다.

정각 여섯 시면 주인이 운동화에 운동복 차림으로 방갈로를 나설 것이다. 그 시간 상카란 나이르는 문 앞에서 차 문을 열어놓고 대기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정해진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카란 나이르는 온종일 주인의 꾸중을 견뎌야 한다. 말끔히 면도를 한 주인의 얼굴이 화가 나서 붉어지는 모습이 그려지자, 그는 다시 제 몸에게 군대식으로 명령을 했다. “우향우!” 하지만 그의 몸은 그대로 드러누운 채 꿈쩍도 않고 버텼다.

그는 가운데가 처지는 그물 침상에서 일어날 때 쓰고는 했던 수범 하나를 떠올렸다. 뺨은 양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가 함께 휙 내리면 머리와 상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진다. 그렇게 몸이 일어날 때 양손으로 몸 뒤쪽 바닥을 짚어 몸을 지탱한다. 그러면 꼴꼴이 앉는 자세가 된다. 하지만 늙어버린 그가 그 수범을 다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오른손으로 침상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몸에게 계속 명령을 했지만, 그날 아침 그의 팔다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폭 꺼진 침상에서, 그는 함정에 빠져버린 늙은 멧돼지처럼 무기력했다.

다섯 시 십오 분이었다. 무력한 상카란 나이르는 예전의 그 수범을 써서 자신을 침상으로부터 구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양다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리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팔다리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왼쪽으로 드러누워 벽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허연 철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때 문은 벽이었다.

“웬일로 이렇게 누워 있대? 다섯 시 반이나 됐는데.” 말루 아마가 침상 가까이서 있었다. “오늘은 주인 모시고 다니러 안 나가도 돼?”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을까.”

벽을 바라보고 누워 벽을 향해 고민을 털어놓고 있던 상카란 나이르는 바로 누우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오늘은 안 나갈래, 말루.”

“주인이 기다릴 거 아니야.”

“운전사 노릇 이제 못 해 먹겠어. 이젠 늙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바스카란이 보내주는 걸로 살아 보는 거지.”

“그걸로 집세라도 내겠어?”

“있는 걸로만 지내보는 거지. 돈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말루. 까마귀나 소가 돈으로 사나?”

말루 아마는 그의 얼굴을 골똘히 바라보았다. 안 그러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저런 소릴 할까?

전날 아침 다섯 시 반에 집을 나선 상카란 나이르는 밤 열 시 반에야 돌아왔고,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다. 마치 밭 부대를 잔뜩 실은 수레를 끄는 낙타의 얼굴 같았다. 그는 축축하고 땀 냄새가 진동하는 제복을 벗어 차폴나무 가지에 걸고는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두 바가지 붓더니 들어가서 침상에 드러누웠다. 말루 아마가 숯불에 구운 차파티와 감자 카레를 가져왔을 때,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몇 번이나 불러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다리 하나가 흔들흔들한 낡은 의자를 가져다 차폴나무 아래 놓고 앉았다. 마치 몹시 출기라도 한 양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잿빛 수염이 짧게 자란 턱 밑을 긁으며 이따금 침을 뱉었다. 구역질이라도 나는지 입속의 신맛을 다시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남편은 게으름을 부리듯 앉아 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가 흘러내려 두피가 들여다보이는 남편의 머리를 보며 무슨 회한한 생각으로 꽉 차있는 모양이라고 여겼다.

말루 아마는 남편의 별난 행동에 몹시 불안해하며 화장실로 갔다. 수돗물이 나오는 동안 집안일을 다 마쳐야 했다. 그녀는 들통이나 솥에다 물을 채워놓고 빨래를 했다. 빨래를 하는 내내 그녀는 나무 아래를 계속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상카란 나이르는 길에 버려진 짐짝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누구에게 모진 소리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순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걸 처음 보았다. 부엌으로 간 그녀는 마음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젖은 손을 옷에 닦으며 다시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을까? 내가 남이야?”

상카란 나이르는 뺨 부리는 사람의 바구니에 든 뺨이 무엇에 놀란 듯 슬쩍 움직였다.

“운전사 노릇이란 게 뭐야, 말루? 남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잖아? 자기 목적지에는 절대 못 가고 말이지. 그런 짓을 삼십팔 년 동안 했어. 이젠 지긋지긋해.”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열쇠 구멍을 파고드는 열쇠 같았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겠지만 난 알아…….”

상카란 나이르는 나무 아래 웅크린 채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루 아마는 그에게 조금 더 다가서서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고상한 얘기를 알아들을 만큼 똑똑하질 못해서.”

“삼십팔 년이야. 오 년이나 십 년도 아니고 삼십팔 년…….” 상카란 나이르는 운전대를 하도 잡아서 못이 박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상카란 나이르는 시인이 되기를 몹시 원했지만 운전사가 되었다. 그 생각을 다시 하자니 구역질이 났다.

기억들이 뱃속 깊은 데서 발효되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식도를 가득 메운 신맛과 역한 냄새를 견뎌야 했다. 토할 것 같았다.

“나이르, 여기 당신 열쇠…….”

상카란 나이르는 공손히 인사하듯 몸을 앞으로 수그리고 있다 더 숙이더니, 양손을 뻗어 열쇠를 받았다. 그때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백삼십 루피에다 속소로 차고 위의 방을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그는 이십 루피를 가불 받아서 코틀라 무바라푸르에 가서 목욕용 물을 받을 양동이와 조리용 알루미늄 그릇들과 난로를 샀다. 상카란 나이르의 단순하고 초라한 생활은 차고 위의 방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의 첫 주인은 세트(Seth) 계급 사람이었다. 그는 늘 세르와니를 입고 다녔고, 췌었는데도 늘 판(paani)을 씹고 있었다. 주인이 앉는 뒷좌석의 유리창 그의 좌석 뒷면엔 주인이 뺀 뺨간 침이 항상 튀어 있었다.

“카시미르 게이트로 가.”

상카란 나이르는 라즈 가트 앞의 텅 빈 도로를 달리면서, 주인의 회사가 카시미르 게이트에 있겠거니 짐작했다. 그는 주인이 사업가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주인은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차를 대라고 했

다. 버스들이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 건물이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그 낡은 건물 가까이 차를 대놓고 안에서 기다렸다. 가까이에는 밀가루 공장이 있었다. 밀 빵는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일꾼들이 뜨뜻한 밀가루를 소 그림이 있는 부대에 담아서 공장 베란다에 쌓고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그 유명한 ‘소 표 밀가루’가 여기서 생산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얼마 뒤 상카란 나이르는 소변이 마려웠다. 하지만 차 주변을 떠날 수 없었다. 근무 첫날이 아니던가? 소변을 보러 자리를 막 비운 순간에 주인이 온다면 어쩌란 말인가? 그 순간 그는 이미 외관상으로는 공장 인부들 중 하나처럼 변해 있었다. 공장에서 계속 날아든 밀가루가 그를 세 시간 안에 탈바꿈시켰다. 주인은 차를 공장 앞에 세워줬다고 그를 나무랐다. 밀가루가 주인의 기사뿐만 아니라 주인의 차까지도 변모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주인의 차는 낡은 것으로, 트럼펫 모양의 경적에 큼직하고 화려한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었다.

돌아오던 길에 상카란 나이르는 주인이 그 낡은 건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뒹고 있었는지가 자꾸 궁금했다. 주인은 그에게 카시미르 게이트에서 파하르간즈로 차를 몰라고 했다. 파하르간즈에는 왜 가는 걸까? 기사로서 그는 그런 걸 다 알 필요가 없으며 그의 임무는 주인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뿐임을 알았지만, 주인이 세르와니 아랫자락을 높이 들며 어느 낡은 건물로 올라갈 때 상카란 나이르는 주인이 왜 거길 갔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이 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샀을 때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젠 올 필요 없다.” 주인은 말했다. “차가 새 거니까. 넌 새 차를 다뤄본 경험이지.”

주인은 낡은 차를 버리듯이 기사도 버려 버렸다. 이 년 반 만에 상카란 나이르는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그는 운전사의 세계는 길거리라는 걸 깨달았다. 기사는 일자리가 있으면 주인을 목적지까지 모시기 위해 거리를 달려야 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돌아다녀야 한다. 그는 차고 위의 방에서 그릇이며 난로며 양동이를 짠 짐 꾸러미를 지고 나오다가 제복을 입은 새 기사를 보았다. 수바스 찬드라 보스의 모자 같은 걸 쓴 새 기사가 트렁크를 들고 올라오는 중이었다. 그는 수입차를 많이 다뤄본 기사였다.

한 달 뒤 상카란 나이르는 그가 이 년 반 동안 몰던 차가 다시 길거리에 나타



난 것을 보았다. 아기 울음 같은 소리를 내는 우스꽝스런 경적이 달린 그 차는 새로 칠을 한 모습이었다. 그가 앉았던 운전대 뒤에는 머리가 벗겨진 기사가 앉아 있었고, 주인이 앉던 뒷자리에는 정장을 한 마른 노인이 있었다. 그는 주인도 기사도 바뀌었지만 그 차가 예전처럼 길에 다니는 걸 보니 대단히 반가웠다. 그는 일자리도 없고 할 일도 없었기에 카르발라에 있는 판 가게 앞에서 비디(beedi)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사람보다 물소가 더 많은 카르발라에 있는 골목에서 살았다. 흙벽돌 벽에 석면 지붕을 이은 방에는 낮에도 빛이 통하지 않았다. 문을 닫아 뒤편 고약한 물소 오줌 냄새가 진동을 했다. 소들이 꼬리를 들 때마다 작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누런 오줌이 골목에 개울을 이루곤 했다. 그는 방에 앉아서 비디를 끊임없이 피워 댔다. 비디의 열기 때문에 입술과 목이 바짝 탔다. 방에 앉아 있기가 지겨우면 밖에 나와 판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어이 나이르, 아직 일자리 못 구했나?”

가게 주인이나 이웃들이 그렇게 묻곤 했다. 상카란 나이르로서는 짜증나는 질문이었다. 실업보다는 남들이 일을 구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더 괴로웠다. 운전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찌란 말인가? 그는 기사 없이 다니는 차가 그에게 다가오는 상상을 해 보았다. 그런 차가 있다면 그가 타고서 운전대를 잡아 차의 기사가 될 터였다.

삼 개월 후에 상카란 나이르는 다시 취직을 했다. 그는 그 자리를 육 년 동안 지켰다. 이때 그는 앰배서더나 스탠더드 같은 회사의 차들이나 마힌드라의 지프를 몰았다. 그의 주인은 어느 회사의 사장이었다. 사장은 자기 차가 두 대 있었고, 부인 전용차가 따로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그 차를 몰았다. 그는 오전 열한 시가 될 때까지는 기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 사이 상카란 나이르는 자신의 야윈 몸에 오일을 바르고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겨울 햇살을 즐겼다. 열한 시가 되면 그는 긴 바지와 코트와 뽀족한 모자 차림으로 주인 부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처음 보면 공군 병사의 제복 같은 자신의 제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은 제복을 입지 않고 서는 차에 타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기사가 할 일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운

전대를 잡고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꺾어 그 길로 갈 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는 매일 주인 부인을 모시고 부자들이 사는 집으로 갔다. 그런 큰 집들이 누구의 것이며 그녀가 왜 거기에 가는지 그로선 알 길이 없었다. 어떤 날에는 몇 시간씩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런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혼자서 카드놀이 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맞은편에 상대가 있다고 상상하며 카드를 돌리곤 했다. 그리고 아주 신이 나서 상상의 적과 함께 놀이를 하곤 했다. 돈을 걸고 할 경우엔 상대와 싸우기도 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상대와 소리를 치며 다투고 드잡이를 하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그를 바라보곤 했다.

하루는 그가 혼자서 카드놀이에 한참 빠져 있는데 사장 전용 차량이 다가와서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비교적 신형인 포드 승용차였다. 사장은 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방갈로 안으로 들어갔다 조금 뒤에 돌아왔다. 상카란 나이르도 사장이 방갈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이에 난 두 번의 폭죽 소리를 들었다.

“여기서 기다리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사장이 말했다. “그 여자 다시는 안 돌아올 테니까.”

상카란 나이르는 구급차에 경찰에 응성응성하는 소리까지 들리자, 부채처럼 펴들고 있던 카드들을 가상의 상대 앞에 팽개쳐 버리고는 자동차 문을 열었다. 그는 곧장 방갈로들 사이로 난 차선들 중 하나로 차를 몰아 피신해 버렸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피신일 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경찰서와 법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그 사이 그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카나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라만 필라이의 딸 말루였다. 그는 파리다바드에서 타이어 거래상을 하는 아푸쿠탄 남비아르의 기사로 다시 취직한 뒤, 말라이 만디르 사원에서 말루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아푸쿠탄 남비아르의 기사 노릇을 십일 년 반 동안 했다. 그 사이 말루는 바스카란을 낳았다. 남비아르가 사업을 접고 케랄라로 돌아가자, 상카란 나이르는 다시 길거리로 돌아왔다. 그는 일자리가 있을 때는 길에 차를 몰고 다녔고, 일자리를 잃으면 길거리를 걸어 다녔다. 평생을 길에서 생활하며

길에서 끝을 보는 게 운전사의 운명이었다. 이마에 새겨진 운명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상카란 나이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육 년은 람 마노하르 로히아 병원의 엘리야마 마타이의 기사로 일했다. 일 년 반 동안은 유나니 약재 제조업자의 기사로 일했다. 업자의 공장은 투글라카바드에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팔 개월 동안 경마장 기수의 기사 노릇을 하기도 했다. 기수는 거의 항상 말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 상카란 나이르는 차를 어디엔가 세워 놓고서, 말들을 씻기거나 먹이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기수가 경마를 그만두고 마할락시미로 돌아가자, 상카란 나이르는 다시 길거리를 배회하게 되었다. 거리는 절대 그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그는 칠 개월 동안 실업자로 지내면서 좀 불어난 몸매다 참기름을 바르고는 밖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말루가 라만 필라이의 현금 통에서 잔돈을 슬쩍하곤 했기에 가족이 굶주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었다.

젊은 사업가 밑에서 이 년 반.

사장 밑에서 육 년.

아푸쿠탄 남비아르 밑에서 십일 년 반.

엘리야마 마타이 밑에서 육 년.

유나니 약재 제조업자 밑에서 일 년 반.

경마 기수 밑에서 팔 개월……

거의 사십 년 기사 경력 동안 상카란 나이르는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던가! 라칸팔(Lakhanpal) 계급인 정치인의 지프를 몰고서 히말라야 산골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던가……. 엘리야마 마타이는 데라둔에 자주 가곤 했다. 조지 마타이 중령이 데라둔 연대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주말을 거기서 보내고 월요일에 돌아올 때면, 중대 본부 사람들이 지프 트렁크 좌석에 쌀부대를 여럿 실어주곤 했다. 모라다바드의 칼이 유명하듯이, 데라둔에선 바르마티 쌀이 유명했던 것이다. 상카란 나이르는 엘리야마 마타이가 그 많은 쌀로 무얼 하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다. 그가 알기로 그녀는 혼자 지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만 예외일

뿐, 기사는 주인이나 안주인에게 목적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자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쌀부대를 목적지까지 나르면 그만일 뿐, 그는 그것들을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볼 권한이 없었다. 때때로 그는 그런 습관을 운전이 아닌 영역에서도 지키곤 했다. 한번은 밤 아홉 시에 집에 와보니 말루가 집에 없었다. 그녀는 열 시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상카란 나이르는 그녀를 보자 “말루, 어디 갔었어?”라고 물었다. 그녀는 “사디크 나가르에 갔었어”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답을 듣고 더 묻지 않고는 제복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뒤 수도꼭지 아래 앉아 씻기 시작했다. 그는 마땅히 더 물어봤어야 했다. “말루, 이 밤에 사디크 나가르엔 왜 갔지?”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운전사인 그는 남들의 목적지만 알면 되었지 무슨 일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데라둔에서 새벽에 쌀부대를 잔뜩 싣고 엘리야마 마타이와 함께 돌아오는 길이면, 상카란 나이르는 늘 모라다바드 시장에 차를 잠시 세웠다. 차 한 잔을 개운하게 마신 다음 대장간 골목으로 가서 부엌칼을 사기 위해서였다. 그는 모라다바드를 지나갈 때마다 칼을 적어도 한 자루씩은 샀다. 이 무렵 그는 칼을 적어도 열두 자루는 사두었다. “뭐하는 거야? 운전 그만하고 칼 장사라도 하려고?” 하며 말루가 농담으로 물어본 적이 있을 정도였다.

정치인을 위해 일할 때 그는 어딘지 모를 오지를 많이도 다녔다. 그들은 이론 마차와 인력거가 다니는 소읍들을 방문하곤 했다. 겨자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골 같은 곳이었다. 그 정치인의 불일은 알모라에서 있을 선거였다. 그곳은 언제나 눈으로 덮인 봉우리들과 양들이 풀을 뜯는 골짜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돌아온 상카란 나이르는 말루에게 합장을 하며 “나마스테”라고 인사했다. 그 뒤로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합장을 하며 이를 흰히 다 드러내고 웃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웃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랬다.

정치인의 명령을 따라, 상카란 나이르는 전 인도 의과대학(AIIMS) 앞에 모인 군중들 사이로 지프를 몰았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간에 어떤 여인들이 울부짖으며 가슴을 칠뿐이었다. 경찰이 지프를 가로막자, 정치인은 간디나 네루가 즐겨 쓰던 하얀 모자를 주머니에서 꺼내 쓰고 나가더니 경찰과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은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상카란 나이르는 유사프 사라이로 가서 주차를 해야 했다. 무전기를 갖춘 경찰차들이 요란한 소리들을 내며 계속 지나갔다. 사람들은 대학 단지 고층 건물들 위에 붙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날 상카란 나이르는 당사 앞에 주차된 여러 차 사이에 지프를 대고 밤새 줄며 앉아 있어야 했다. 말루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렸다.

날이 밝자 정치인과 수행원들이 나와서 지프에 탔다. “가자.” 정치인이 말했다. 상카란 나이르는 어디로 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에 그냥 앞으로 차를 몰았다. 정치인의 무명으로 짠 전통 의상과 몸에 두른 천이 형클어져 있었고 눈꺼풀이 부어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수행원들 중 한 사람이 모라다바드 출신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가 큰 식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한 신사가 운동화에 파란 야구 모자 차림으로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방갈로들 사이로 난 말끔한 포장 도로를 걷고 있었다. 정치인과 수행원들은 지프에서 뛰어내리더니 노인을 향해 돌진했다. 그들은 노인이 떨어진 모자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노인의 긴 머리를 잡고 번쩍 들어 올리더니 길가 덩굴 속으로 던져 버렸다. 그들은 큰 식칼로 피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지프로 돌아와서 밴디쿠트 쥐처럼 떨고 있는 상카란 나이르에게 명령했다. “가자…….”

상카란 나이르가 거처로 겨우 돌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말루가 선 채로 울음을 그치지 않자, 그는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갔다. 그는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열어 놓고 몸을 씻고 싶었다. 그는 수도꼭지의 물이 다 마르도록 아래에 마냥 앉아 있었다. 몸에서 피비린내와 불에 탄 살 냄새가 가시질 않는 느낌이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모든 주인을 정직하게 진심으로 섬겼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그만두게 했다. 세트 계급의 사업가가 메르세데스 벤츠를 샀을 때, 아푸쿠탄 남비아르가 타이어 사업을 접었을 때, 사장이 부인과 그 연인을 쏘아 죽였을 때, 일자리를 잃은 것은 상카란 나이르였다. 하지만 그 정치인은 상카란 나이르를 그만두게 할 마음이 없었다. 일을 그만둔 건 상카란 나이르였다. 그는 정치인에게 열쇠를 내려놓으며 밀린 임금을 받을 생각도 없이 걸어 나와 버렸다. 상카란 나이르는 평생 그렇게 먼 길을 힘들게 걸어본 적이 없었다. 물

집이 잡히도록 뜨거운 별을 십이 마일이나 걸었다. 그가 일사병으로 죽지 않은 건 말루의 운이 좋아서였다.

상카란 나이르는 비카지 카마 플레이스에서 택배 회사의 사장을 위해서 일했다. 주인은 아침 여섯 시마다 운동복을 입고 사슴 사냥터 뒤편에 있는 숲을 달렸다. 면도를 맡김히 한 얼굴이 퍼렇고 큼직한 주인은 시간 엄수를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상카란 나이르가 정시에 나타나지 않아 아침 조깅이 무산된 주인은 몹시 화가 난 채로 그를 버리고 있었다. 상카란 나이르는 몸을 굽혀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차 열쇠를 내놓았다.

“뭐하는 거야, 나이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뭐가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상카란 나이르는 목에 천식기가 있기도 해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동안 그는 남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노릇을 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 동안 그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힘쓰기로 결심했다.

“왜 아무 말 없어?”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그 나이에 뭘 하고 살겠다는 거야?”

“시인은 늙지도 죽지도 않지요.”

상카란 나이르는 다시 절을 하고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는 그의 앞에 환하게 빛나는 세상이 있었다. 그는 천식일랑 잊고는 그 눈부심 속으로, 집으로 걸어갔다.





# The Driver

Certain things happening right from the morning gave Sankaran Nair the feeling that his limbs were not obeying him.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his limbs were exhibiting this sort of defiance.

Today also Sankaran Nair woke up at five in the morning, like swimming across a river and reaching its shore. For him, sleep is always a river in spate. He doesn't need an alarm clock. At five a.m. sharp, a rooster will crow from inside his head. Like one who, exhausted after swimming, holds on to somewhere on the land and looks around, Sankaran Nair looked about in all directions. He lay looking at the drumstick tree in the yard, through the wooden window bars blackened by the soot from the coal-oven. The drumstick tree was shaking off darkness from its boughs. Sankaran Nair, lying on a string cot, gave his body the command to turn on his right side, and to rise up, supported by his right hand. But his

**M. Mukundan** Mukundan was born in 1942 in Mahe, then under French rule. He worked in the French Embassy in New Delhi. He has published ten short-story collections, fifteen novels, a collection of novellas and a work of criticism. He is the winner of Kerala Sahitya Akademi Award, M.P. Paul Award, Muttathu Varkey Award, Central Sahitya Akademi Award, N.V. Puraskaram, The Crossword Award 1999 and Chevalier of Art and Letters of the French Government.

body, like a naughty child, lay there utterly disobedient, without even moving.

The master will come out of his bungalow in canvas shoes and track suit, at six sharp. At that time, Sankaran Nair should wait at the gate, with the car's door open. If there is some slight change in that routine, Sankaran Nair would have to put up with the master's scolding through the rest of the day. Seeing in his mind's eye the greenish-blue smooth-shaven face of the master redden in anger, Sankaran Nair, once again issued a military-like command to his body, "Right Turn!" But his body lying supine disobeyed him once again, without moving even once.

Sankaran Nair remembered one of the tricks he used to employ in getting up from a sagging string cot. Simultaneously raise both the outstretched legs and bring them down swiftly in one motion, and the head and the upper torso will automatically rise. Along with that rising, plant both palms firmly behind the body, support yourself on the hands and sit tight. You are sitting bolt upright now. But was he able to repeat the trick now, in his old age? He can get up from the bed only by turning to the right and heaving on his right hand placed on the bed. But the instructions he repeatedly gave his body to do exactly that, have not been carried out by his limbs that morning. He was helpless like an old boar who fell in to a trap, in the deep hollow of that string coat.

It was five-fifteen. The helpless Sankaran Nair resolved to rescue himself from the cot, using that old trick. He commanded both his legs to rise up at the same time. But the legs lay immobile.

Failing to understand why his limbs were disobeying him thus, he lay in consternation on his left side facing the grimy wall on which

the whitewashing was peeling off.

"What kind of a lying in is this? It's already five-thirty." Malu Amma stood near the cot. "Don't you have to go to drive the master around today?"

"I do."

"And yet you are lying like this."

Sankaran Nair, who was lying facing the wall telling it all his woes, turned and lay on his back and looked at his wife. "I am not going today, Malu."

"Remember, the master is waiting for you."

"I can't do this driver's job anymore. I am old..."

"How'll we live, then?"

"With whatever Bhaskaran sends us."

"Is it sufficient even to pay the rent?"

"We'll make do with whatever we have. Don't think about money too much, Malu—is it with money that the crow and the cow live?"

Malu Amma fixed her gaze on Sankaran Nair's face. Why is he talking like this today, as he is not wont to?

Sankaran Nair who had left home at five-thirty in the morning on the previous day had returned only at ten-thirty in the night. His face wore a crushed expression like that on the face of a camel that was pulling a cart filled with sacks of wheat. Taking off and hanging his uniform, damp and full of stench of sweat, on the branch of the drumstick tree, he sat on his haunches under the tree, and poured two buckets of water on his head, went in and lay on his cot. By the time Malu Amma reached with the chappatis baked on live embers and potato curry, he was already asleep. He didn't wake up, though she called him a number of times.

Sankaran Nair took out his old chair with one shaky leg, put it under the drumstick tree and sat down. He was sitting all huddled up, as if it was biting cold. He went on scratching the underside of his chin covered with gray stubble and spat out occasionally. He tasted the sourness of the bile in his mouth along with the retching sensation. Malu Amma was standing with a perturbed mind, seeing him sitting indolently and watching his funny behaviour. She felt that in her husband's head, from which the hair had fallen off and the scalp was showing, some strange musings were filling up.

Malu Amma, in utter anxiety about her husband's erratic behaviour, went over to the bathroom. She had to finish her chores before the water tap ran dry. She stored water in buckets and cauldrons and washed clothes. In between, she kept shooting glances towards the base of the drumstick tree. Sankaran Nair was sitting like a piece of baggage someone discarded on the way.

Malu Amma knew that he was a simpleton who never spoke a harsh word to anyone, one who never lost his temper. This was for the first time that she saw such an irregularity in his behaviour. She could not keep her mind on her work in the kitchen. Wiping her wet hands on her clothes, she went once again near Sankaran Nair.

"Can't you tell me whatever is bothering you? Am I an outsider?"

There was a movement in Sankaran Nair, like when someone disturbed the basket of a snake-charmer.

"What is the job of a driver, Malu? Taking others to their destinations, right? And will never reach his own destination, for sure. I am doing this job for the last thirty-eight years. I am fed up."

His gaze entered her eyes like a key penetrates the keyhole.

"No one will understand. No one can understand, I know...."

Sankaran Nair sat hunched up under the drumstick tree, without uttering a word.

Malu Amma moved a little closer to Sankaran Nair and placed her hand on his head. "Forgive me," she said. "I am not intelligent enough to catch up with sublime things."

"Thirty-eight years...not five or ten, but thirty-eight...." Sankaran Nair murmured looking at his palms callused by holding the steering wheel.

Sankaran Nair had aspired to become a poet. And became a driver. When he began thinking about it, he retched.

Memories fermented and rose up deep down from his guts. He tasted the sourness and foul smell filling his gullet. He felt like vomiting.

"Nair, here's your key —"

Sankaran Nair, who stood bent forward deferentially, bowed further down, stretched out both his hands together and took the ignition key. He was twenty-one, then. One hundred and thirty rupees and a room above the car shed, as residential accommodation. With the amount of twenty rupees he took as advance on salary, he went to Kotla Mubarakpur and bought an iron bucket for drawing water for his bath, aluminum vessels for cooking and a stove. Thus, Sankaran Nair began his simple, humble life, in the room above the car shed.

His first master was a Seth. He went about always in a sherwani; though young, he used to chew paan all the time. The glass of the window at the back seat he sat in, and the back of the seat in front of him were spattered with his red spittle.



“Go to the Kashmere Gate.”

As he sped past along the empty road in front of Raj Ghat, he guessed that his master's firm would be at Kashmere Gate. He didn't know anything except that his master was an industrialist. The Seth ordered that the car be stopped in front of an old structure behind the bus stand. When buses passed, that structure shuddered. Stopping the car close to the old building, Sankaran Nair waited inside. Close by, there was a flour mill. The machines were pounding wheat, emitting a deafening roar. The labourers filled the warm wheat flour in sacks on which were printed the picture of a cow, and stacked them on the mill building's verandah. Sankaran Nair realised that the famous “Cow Brand Atta” was manufactured here.

After some time, Sankaran Nair felt like urinating. Yet, he didn't leave the vicinity of the car. Wasn't it his first day of work? Suppose the Seth came out at the very instant he moved away to urinate? For three hours he paced beside the car, holding his lower belly firmly with both his hands. By this time, he had turned, in appearance, into one of the mill hands. The flour dust that flew out from the mill constantly, had transfigured him within three hours. And the Seth scolded him for parking the car in front of the mill. The flour dust had transfigured not only the Seth's driver, but his car too. It was an old car with a trumpet horn complete with the big, ornate balloon for pumping the air.

While driving back, Sankaran Nair couldn't help wondering what the Seth was doing for such a long time in that old building. The Seth had ordered him to drive to Paharganj, from Kashmere Gate. Why is the Seth going to Paharganj? Though he knew that as a

driver, he was not supposed to know all this, and that his only duty was to drive his master safely to the destination he indicated, yet when the Seth climbed up the stairs of an old building, holding the lower end of his sherwani aloft, Sankaran Nair could not but ask himself the question why the Seth had gone in there.

It was when the Seth bought a new Mercedes Benz car that Sankaran Nair lost his job. “You need not come any more,” said the Seth. It is a new car. You aren't experienced enough to handle it.”

Like the Seth dispensed with the old, worn out car, he did with its driver as well. After two-and-a-half years, Sankaran Nair was again on the streets. He realised that the world of a driver was in the streets. When he has a job, he has to drive his master along the streets, to his destination. When he is out of job, he has to wander about along the streets, in search of a job. As he was getting out of the shed, carrying a bundle containing the vessels, stove and bucket, he saw the new driver wearing a uniform, with a cap like Subhash Chandra Bose's, coming upstairs with a trunk in his hand. He was a driver well-experienced in handling imported cars.

A month later, Sankaran Nair saw the car he drove around for two-and-a-half years, back in the streets, with a new paint on its body and with a funny horn with the noise of a baby's wailing. Behind the steering wheel, where he used to sit, he saw another driver with a bald head, and in the back seat where the Seth used to sit, was a thin old man in full suit. Sankaran Nair was very happy to find that car running in the streets as usual, though the owner and the driver had changed. He was standing in front of a paan shop in Karbala, smoking a beedi, as he was jobless and there was nothing else to do.

Sankaran Nair was staying in a galli in Karbala where there were more buffaloes than people. It was a room with mud brick walls and an asbestos roof, where light didn't enter even during daytime. Even if one closed the door, the acrid smell of buffaloes' urine would hang heavy in the air. The yellow urine that cascaded like minor waterfalls, as the buffaloes raised their tails, would create small deluges in the galli. When sitting in his room, Sankaran Nair would smoke beedi continuously. With the heat of the beedi, his lips and throat would be parched. When he was tired of sitting inside the room, he would come out and stand in front of the paan shop, smoking.

"What-ho Nair, haven't you got any job yet?"

The paanwallah and his neighbours would go on asking him. That question would annoy Sankaran Nair. It was not unemployment, but the questioning by others about it, that disturbed him. What could he do who knew no job other than driving? He imagined a car without a driver, coming towards him. If there was such a car, he could get into it, take over the steering wheel and become its driver.

After a three-month wait, Sankaran Nair got an employment once again. He continued with that job for six years. During this time he drove Ambassador and Standard cars and Mahindra jeeps. He was the driver of a company manager. The manager who had two cars, set aside one for his wife's exclusive use.

Sankaran Nair was driving that car. She didn't need the driver till eleven o' clock. During this time, Sankaran Nair would apply oil on his thin body and sit on the terrace, enjoying the cold sunshine of winter. By eleven o' clock, he would present himself in front of the

master's wife, in a uniform of long trousers, coat and a peaked cap. He didn't like that uniform which looked at first glance, like an airman's. But the manager had commanded him that he shouldn't get in to the car without wearing the uniform. It is a driver's duty to obey orders. The fact that though the steering was in his hands, he was not authorised to turn it to the direction he liked and take that route, gave Sankaran Nair a feeling of suffocation.

Sankaran Nair would take the master's wife daily to the houses of the rich. He didn't know whose were those big houses or why she went into them. On certain days, he would have to wait for her in the car for hours on end. To escape that boredom, he learned to play cards all by himself. He would deal out cards imagining that there was his partner sitting opposite him. He would go on playing with his imaginary opponent with great spirit and gusto. On the occasions he played for money, he would quarrel with his opponent. The passers-by would gape at him, when he went on shouting and quarrelling and grappling with the unseen antagonist.

One day as he was engaged in a hot game of cards with himself, the manager's official car came and stopped in front of his car. It was a comparatively new Ford. The manager went into the bungalow without paying attention to Sankaran Nair and returned a little later. The two cracker bursts heard from inside the bungalow in between the manager's going in and coming back did not go unheard by Sankaran Nair.

"Do not waste your time waiting for her," said the manager. "She won't come back anymore."

When he noticed the ambulance, police and all the hullabaloo, Sankaran Nair threw the cards he held in his hand like a fan in front

of his imaginary opponent, opened the door of the car, rushed out and took refuge in one of the lanes in between the bungalows. But that was only a temporary escape. He had to frequent the police station and the courts for a long time.

During that time, his only solace was Malu, the daughter of Raman Pillai who ran a restaurant in Khanna Market. After taking up a new job as the driver of Appukkuttan Nambiar who was dealing in tyres in Faridabad, Sankaran Nair tied the tali around Malu's neck, at Malay Mandir.

Sankaran Nair was the driver of Appukkuttan Nambiar for eleven-and-a-half years. In the meanwhile, Malu gave birth to Bhaskaran. When Nambiar wound up his business and went back to Kerala, Sankaran Nair was back on the street. When he had a job, he went about in the streets, driving his car. When he was out of job, he would roam the streets, on foot. To experience the whole of life in the streets and be finished with it, is the fate of a driver. No one can wipe off whatever is inscribed on one's head. Sankaran Nair heaved a deep sigh.

Six years with Eliyamma Mathai of Ram Manor Lohia Hospital. One-and-a-half years, with the owner of a Yunani medicine manufacturing unit. His factory was in Tuglakabad. Eight months with a jockey in the Race Course. The jockey who was almost always on horseback, didn't really need a car. Sankaran Nair would park the car somewhere and pass time watching horses being given bath or fed. When the jockey left the race course and moved over to Mahalakshmi, Sankaran Nair was once again on the streets. The street was there, never leaving him. He whiled away the time sitting in the sun after putting gingelly oil on his body now a little

fleshy after seven months of unemployment. As Malu always succeeded in filching some change from Raman Pillai's cash box, they somehow pulled on without starving.

Two-and-a-half years with the Seth.

Six years with the Manager.

Eleven-and-a-half years with Appukkuttan Nambiar.

Six years with Eliyamma Mathai.

One-and-a-half years with the Yunani medicine manufacturer.

Eight months with the jockey....

In his nearly four decades of a driver's life, what-all were the experiences Sankaran Nair went through! How he wandered in the Himalayan valleys with the jeep of the political leader Lakhanpal....Eliyamma Mathai would go to Dehradun frequently. Major George Mathai was in Dehradun Regiment. When returning to the city on Monday, after spending the weekend there, orderlies would stack sacks of rice in the dicky. Like the knives of Moradabad, the Basmati rice of Dehradun also was famous. Sankaran Nair would wonder what was Eliyamma Mathai doing with all this rice, since he knew that she lived alone. Apart from asking where to go, a driver doesn't have the freedom to ask the masters or mistresses, why must they go where they were going. Likewise, apart from taking these sacks of rice to their destination, he had no authority to ask whom they were meant for. At times it so happened that he practised this habit of compliance even outside the sphere of driving. Once, when he came back after work at nine in the evening, he did not find Malu home. She came back only after ten. When he saw her, Sankaran Nair asked her, "Malu,



where have you been?" When she replied, "I had been to Sadiq Nagar," he was satisfied with that answer; he took off his uniform, wound a towel around his waist, and sat under the water tap for his bath. In fact, he should have asked pursuing the query, "Malu, why did you go to Sadiq Nagar, at this time of the night?" But Sankaran Nair, a driver, needed only to know the destination of others, not their intentions.

On his way back from Dehradun at dawn with Eliyamma Mathai, with rice-sacks stacked away in the dicky, Sankaran Nair always stopped the car for a little while in Moradabad bazaar. After refreshing himself with a tea, he would go over to the blacksmiths' street and buy a kitchen knife. Whenever he passed through Moradabad, he used to buy at least one knife. By this time, he had bought at least a dozen knives. "What is it, are you going to quit the job of a driver and take up a dealership in knives?" Malu asked once in jest.

At the time of serving the political leader Lakhanpal, he would be driving him through unknown outbacks and interiors. They travelled in small towns where tongas and rickshaws ran, in rural areas where mustard fields spread unendingly before the eye and valleys filled with white snow. When election time came, he began to suffer real hardships. Lakhanpal's election duty was in Almora in the background of which were peaks with perpetual snowfall, and valleys where sheep grazed. Sankaran Nair, who reached back home after the election campaign, said 'Namaste' to Malu, holding his palms together in salutation. In the days that followed Sankaran Nair could be seen laughing showing all his teeth and greeting people with folded palms, when he met the neighbours or even

passers-by.

Obeying the orders of Lakhanpal, Sankaran Nair drove the jeep into the crowd that had gathered in front of the 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None among them spoke to each other. In between some women were seen wailing and beating their breasts. When the police blocked the jeep, Lakhanpal fished out and donned the Gandhi cap he had kept in his juba-pocket, and stood arguing with them. But the police refused to let him go forward. Sankaran Nair had to go up to Yusuf Sarai, to park the jeep. Police vehicles fitted with wireless sets kept screeching past. People began shouting slogans looking at the top of the high rise buildings of the AIIMS complex.

Throughout that night, sliding his jeep among the several vehicles parked in front of the party office, Sankaran Nair sat dozing off. He was perturbed thinking that Malu was alone in the house.

When it was dawn, the leader and followers came and sat in the jeep. "Chhalo," said Lakhanpal. Since he had not been told where to go, Sankaran Nair just drove ahead. The khadi kurta and dhoti of the leader had been disheveled and his eyelids were swollen. Sankaran Nair couldn't help feeling that one of the followers hailed probably from Moradabad. Because, he carried a big chopper. Seeing an elderly gentleman in canvas shoes and blue pagiri, out on his morning walk, coming down the neatly paved lane between the bungalows, Lakhanpal and followers jumped out of the jeep and bore down upon the old man. They caught him by his long hair as he bent down to pick up the pagiri that had been jerked off his head, lifted him off his feet and tossed him on to the strawberry tree. They got back to the jeep after letting the cleaver quench its

thirst for blood and commanded Sankaran Nair who sat trembling like a bandicoot, “Chhalo...”

It was the next day evening that Sankaran Nair managed to reach back his dwelling place. As Malu stood unable to control her weeping, Sankaran Nair peeled off his dress and went over to the bath room. He yearned to open all the available taps on to his body. He sat beneath the tap till it ran dry. He felt that still his body wasn't rid of the stench of blood and burnt flesh.

Although Sankaran Nair served all masters honestly and sincerely, they all invariably terminated his services for one reason or another. When the Seth bought a Mercedes Benz, Appukkuttan Nambiar wound up his tyre business, or the company manager shot dead his wife and her paramour, it was Sankaran Nair who lost his job. But the leader Lakhanpal wasn't terminating his services. It was Sankaran Nair who resigned his job. Placing the ignition key before the leader, Sankaran Nair walked out, without even bothering to collect salary arrears. That was one hell of a long walk Sankaran Nair made during his entire life. Twelve miles in a blistering sun. It was Malu's luck that he didn't breathe his last due to sun stroke.

Sankaran Nair was finally working for the owner of a courier service in Bhikaji Cama Place. Every morning at six o'clock, he would don a track suit and go running in the woods, behind the deer park. The master, with his big face, clean shaven with a greenish-blue hue, is very strict about punctuality.

The master, angered by the fact that his morning run was aborted owing to Sankaran Nair not turning up in time, lay in wait for his driver. Sankaran Nair bent low in obeisance and handed over the key of the car without uttering a word.

“What is it, Nair?”

“I am fed up.”

“What are you fed up with?”

Sankaran Nair stood silent, with the asthma in his throat. All these years, he had served taking others to their destinations. He had already resolved that for the rest of his life, he should be striving to reach his own destination.

“Why don't you say something?”

“I can't drive any longer, Sir.”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now in your old age?”

“Poets do not age or die, Sir.”

Sankaran Nair bowed down once again and walked back. As he came out the gate, the world stood bright in front of him. Forgetting the asthma in his chest, he walked home through that brightness.

## 라다. 오직 라다.

**폴 자카리아** 1945년에 태어난 말라얄람 작가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수필들을 발표했다. 인도 케랄라의 코타암 구역 우를릭쿤남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트리반드룸에 살고 있다. 그의 작품 다수가 영역되었고, 인도의 여러 언어와 독일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사히타 아카데미 상을 수상했다. 그의 장, 단편 소설들은 실험적이고 감정을 절제한 독특한 문체와 급진적인 주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그의 작품 열 세편이 미국 국회도서관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종교적 급진주의와 퇴폐적인 마르크스주의 비판으로 신체적 공격을 받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의 친구이자 저명한 문인인 M. 무쿤단이 말라얄람어<sup>●</sup> 문학에서는 유명한 「라다. 오직 라다.」라는 단편을 썼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나는 '이름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말함으로써 같은 제목의 이 단편을 썼다는 문제를 사소해 보이게 만들 생각도 없고, 정당화할 생각도 없다. 나는 이름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서 C. 클라크가 쓴 아름다운 단편 「신의 90억 가지 이름」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가? 신의 신성한 이름 구십억 개를 중단 없이 읊조리면 창조의 목적이 완수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거대한 기계를 동원하여 히말라야의 아시람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려는 계획이 세워진다. 읊조림이 끝나는 순간을 보러 온 과학자들은 기계가 신의 마지막 이름을 말하기 전에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밤에 산비탈을 내려오다 기계가 마지막 신성한 이름을 발설할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돌아본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아, 저 높은 곳에서, 영원의 끝자락에서 별들이 하나씩 빛을 잃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창조의 목적은 그렇게 완수되었다. 우주는 소멸해가고 있는 것

● 인도의 남서부 끝자락에 있는 케랄라 주(州)에서 주로 쓰는 언어.

이다!

그런데 신이란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건 신의 특권이다. 신은 모든 이름을 주관한다. 구약성경의 신이 공명하는 목소리가 내 유년기로부터 나를 찾아온다. 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지니라! 『찬도가 우파니샤드』에선 말한다. 그대가 아는 모든 것은 결국 이름이라고. 베다 경전 네 가지도, 『바카라나』 문법서도, 베다의 의례들도 전부 이름이다. 이름이 지고의 영혼인 브라만임을 알고 경배할지니! 『브라다라나카 우파니샤드』에서는 만물의 시초에 만들어진 영혼이 주변을 둘러보다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는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첫 이름을 '이것이 나로다'라고 말한다고 전한다. 영혼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두려움은 지나갔지만 불행이 뒤따랐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을 둘로 갈라 여자를 만들었고, 그녀를 쫓아갔다.

나는 전에도 무쿤단의 작중 인물을 공유한 적이 있다. 그것은 도마뱀이었는데, 놀라운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 각자의 단편에서(무쿤단의 작품이 내 것보다 몇 년 앞서 완성되었다) 운명의 매개 노릇을 했다. 무쿤단의 도마뱀이 전광석화와 같이 운명의 평결을 집행해 버림으로써 이야기를 마친다면, 내 단편의 도마뱀들은 오랫동안 일련의 징조를 보여 주인공을 의미의 그물에 걸려들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연시킨다.

운명의 매개가 되는 것들은 많기도 하다! 운명이 우리 생애 개입하는 방식은 얼마나 다양한가! 그것들을 다 묘사하자면 나고 죽기를 무수히 반복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니 짧은 이야기 한 편이 운명이 점지해주는 바를 멀리서 언뜻 일별하게 해줄 수 있을까?

예술의 한계는 작가를 고달프게 만든다. 언어, 정신의 대장간과 예술이라는 거울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진실을 그려낸다는 작가의 주장은 면도날을 타듯 그것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작가의 외로운 언어를 인도해줄 손길이 있을까?

이 단편에 등장하는 청년은 순간적인 기억 상실을 일으키는 운명의 장난에 당하고 만다. 라다라는 젊은 여성은 순간적으로만 등장할 뿐이다. 청년은 결국



다음과 같이 웅얼거릴 뿐이다. 라다. 오직 라다. 운명은 도시의 황혼 속에 땅각의 커튼을 갑자기 그에게 드리워 놓고 사라져 버린다. 청년은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종종 떠올릴 것이며, 라다에 대한 새로운 욕망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 한두 명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기억의 한 우연한 단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작가의 타산적인 시선은 그런 미래를 좇다가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가의 거부당한 시선은 운명의 발자국을 따라간다. 굶주린 자칼처럼, 작가는 운명을 사냥하듯 뒤쫓는다. 그러다 운명이 눈에 띄면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내가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길 바란다. 나는 작가와 인물의 차이를 드러내어 가면서, 우선은 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

저를 비진리로부터 진리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사망으로부터 불멸로 이끌어 주소서.●

\*

나는 연인을 품었다가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운 릴라의 호흡이 들려왔다.

그녀는 잠든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도 나처럼 밖을 내다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 멍하니 뒤통을 놓고 내면의 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터였다. 바깥으로 보이는 교외의 풍경은 호흡이 좀 거칠었다. 바람은 나무 위를 무심히 쓸고 지나갔다. 구름은 거대한 샘에서 뿜어져 나오듯 빠르게 하늘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한바탕 불어닥쳤다. 창을 때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우박 몇 알이 창틀에 떨어지며 튀어 올랐다. 나는 닫힌 창 뒤에서 안심하면서, 바람에 순종하는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어린 여자아이의 눈빛이었다. 아빠의 손을 잡은

● 마하트마 간디가 매일 행했던 기도.

소녀의 머리카락과 드레스가 바람에 날렸다. 아이는 우박 속에서 춤을 추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커다란 두 눈이 창문 뒤편에 있는 내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다시 밖을 내다보니, 아이는 걸어가면서 우박을 줍기도 하고 손을 펴 바람을 잡기도 했다. 나는 뒤로 물러나 버린 자신이 부끄러웠다. 무슨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놀란단 말인가? 내 뒤편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과의 관계 때문이었나? 나는 돌아서서 릴라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녀의 몸이 다시 나를 욕망으로 채웠다.

릴라에 대한 나의 욕망은, 끊임없이 사랑과 욕욕을 추구하는 불안한 청춘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공상과 두려움에 끌리고 말았다. 나는 오랫동안 릴라를 먼발치에서만 지켜보다가, 차츰 스며들듯 가까워져 그녀의 방에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한 여인의 신비로운 침실에 말이다. 날은 참 더디 갔다. 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짜내어 가면서 릴라의 방에서 자리를 마구 옮겨 가며 꿈지락거렸다. 새장에 갇힌 악령처럼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흥얼거리거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차를 나오거나 목욕을 하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나와 함께 산책을 가기도 했다. 릴라가 욕실에 있을 때마다, 나는 숨 가쁜 내 몸이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의자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했다.

그녀는 그런 사실을 다 알았을까? 나는 알아내려고 해 본 적이 없다. 그녀의 마음과 비밀이 내가 모르는 채로 남아 있는 편이 나왔다. 그래서 릴라가 어느 날 처음으로 가만히 내 품에 안긴 채 서 있을 때, 나는 그녀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우리가 도달했던 육체적 합의에는 육체적 법칙만이 적용되리라 믿었다. 체취, 온기, 촉촉함, 움직임, 정적의 법칙 말이다.

잠든 릴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때 내가 얼마나 불행했던 지를 떠올리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나의 심장은 들쭉서진 별집처럼 흥분되었고, 나는 실제로 그런 광경을 떠올렸다. 결국엔 어느 날, 길게 늘어지는 지루한 대화 끝에, 나는 모든 희망과 확신을 잃은 채 일어서고 말았다. 릴라도 나와 함께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깥에선 저녁 어스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나올 때 릴라는 불을 다 끈 채, 조금 전 그녀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기다리며 문을 바로

닫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형체는 또렷하지 않았다. 갑자기 나는 반쯤 닫힌 문 앞에 낯선 이처럼 서 있는 여인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다. 열어져 가는 빛으로 창유리를 어루만지는 어스름이 나의 대담한 프로젝트에서 나의 첩자이자 동반자이자 예언자였다. 나는 오랜 친구처럼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녀를 다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누구에게 키스를 하고 있었는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 품에 있는 그녀는 누구였던가? 나를 껴안고 있는 이는 누구였던가? 어둠이 무슨 속임수를 부린 걸까? 나는 내 몸이 가르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아지경으로 서 있었다. 몸의 굴곡들을 더듬어 느끼며, 머리며 목이며 귀며 눈꺼풀이며 코며 입술의 맛과 향을 느끼며 서 있을 뿐이었다. 어둠은 우리를 하나의 예복처럼 결합해 주었다. 그 순간 여인의 입술이 내 볼 가까이서 낮은 음조로 물었다. 왜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지? 자는 그녀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어?'라고 물어 봤어야 했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나에게 용기를 준 건 당신을 감싸고 있던 어둠이었어. 이제 당신을 밝은 데서 볼까. 나는 불을 켜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인을 보았다.

내 뒤에서 릴라는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가 조금씩 빨라져 갔다. 나는 그녀의 몸을 더듬고 싶은 욕망에 저항했다. 나의 탐욕스러운 손길이 수정 같은 꿈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릴 터였다. 창밖에선 바람이 잦아든 뒤였다. 우박을 뿌리던 구름은 멀리 달아나 지평선 위에 번갯불을 번쩍이며 떠 있었다. 그때였다. 우박과 바람을 가지고 놀던 내 어린 친구가 산책로를 되돌아오는 게 아닌가! 나는 소녀로부터 무슨 신호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창문을 열고 기다렸다. 나를 슬쩍 올려다보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기까지 했다. 소녀는 이제 창 바로 아래에 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다. 하지만 소녀는 이 창문 따위는 벌써 잊어버린 뒤였다. 그녀는 계단을 세고 있었다. 하나! 두울! 세엿! 그녀는 그렇게 불려가며 계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계단을 헤아릴 때마다 발을 구르며 말이다. 나는 속으로 절망적인 애원을 해 댔다. 날 좀 봐…… 이제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나 여기 있잖아. 네 이름은 뭐니? 고개 들어 날 좀 봐. 이게 나야. 하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갈 뿐이었다. 하나! 두울! 세엿! 계단 세는 소리가 비 내음 가득

한 어스름 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하루를 셈하는 외침 같았다.

나는 릴라에게 나비와 구름이 어우러진 얇은 이불을 덮어주고, 쪽지에다 이렇게 썼다. '잘 자. 나는 가볼게. 내일은?' 나는 쪽지를 테이블에 놓고 나오며 문을 닫았다. 나를 추방하는 금속성의 소리를 뒤로 하고서, 나는 계단을 내려왔는데…….

자, 이제 결론부의 첫 국면까지 왔으니, 나는 주인공 노릇을 그만둬야 하겠다. 이름을 읊조리는 거대한 기계를 두고 와야 하는 과학자들처럼, 나도 떠나야 한다. 하지만 마지막 국면을 위해 읊어야 할 이름들이 아직 더 있다. 그리고 나는 운명이 남긴 핏자국을 따라가야 한다.

저를 비진리로부터 진리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사망으로부터 불멸로 이끌어 주소서.

카루난은 릴라의 방을 나와서 서둘러 걸었다. 아직 제 자신도 다 알지 못할 생각을 저울질해 가며 걷고 있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한잔하는 것이었다. 그는 술을 여자의 육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좋아했다. 한번은 취한 상태로 릴라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막지는 않았지만 사려 깊게 말했다. '당신 딴 사람 같아.' 카루난은 깜짝 놀라 물리나며 그녀를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사려 깊음에 몸을 떨었다. 그는 외치고 싶었다. 이게 나야! 다른 누구도 아닌! 술은 나의 좋은 벗이야. 보드랍고 신비로운 살결이 떠올라 괴로울 때 도와주는 벗이란 말야.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카루난이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운 것은 바에서 느끼는 외로움 속에서였다. 그는 은은한 빛의 위엄 있는 바의 낡은 등 의자에 고개를 푹푹이 하고 앉아 있곤 했다. 술 한 병의 주인이자 세상의 관찰자이자 어엿한 성인이라는 우쭐함이 있었다. 술은 그가 탐했던 모든 여인들에 대한 씩씩한 기억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를 술 세계의 느린 시간으로 인도해 주고, 진정시켜 주고, 과도한 욕욕의 세계에 빠졌던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가 즐겨 찾던 포도주집은 문이 닫혀 있었다.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던 카루난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얼마 전에도 그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가 릴라의 침실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말이다. 그는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재빨리 정당화했다. 릴라를 차지할 때 얻었던 자신감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카루난으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릴라의 친구 라다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친구 사이인 두 여성을, 그 둘이 서로 모르는 사이에 동시에 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스릴을 느꼈다. 그런 관계가 갖는 근친상간적 성격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그를 마구 취하게 했다. 카루난은 사실 세상의 모든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는 그런 욕구를 해소하거나 억누를 수 없었다. 그에겐 그런 충동이 낮에도 밤에도 꿈에서도 줄곧 흘러넘쳤다. 그것은 무엇 하나에 붙들어 매일 수 없는 갈망이었다. 여성의 몸을 향한 그 가련한 쓸림은 무슨 짐승처럼 슬금슬금 그를 따라다녔다. 카루난은 어느새 라다의 집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카루난은 릴라의 방에 있다가 라다를 집까지 데려다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문간에서 그에게 들어왔다 가라고 함으로써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말았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마르는 걸 느끼며 라다의 방으로 들어가 안을 둘러보았다. 한 여자의 방에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다니! 그는 얹은 채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카루난은 풀려 버린 눈과 지칠 줄 모르는 집중력으로 라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내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그를 흔들었다. 그는 그녀가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고픈 충동을 억누르느라 몹시 애를 쓰며 집중해야 했고, 그래서 지쳐 버릴 정도였다. 라다에게 계속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괜히 목소리를 높여 불필요한 말을 잔뜩 늘어놓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오래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는 몇 번이나 라다의 얼굴을 살피다가 작별을 고하고 나왔다. 계단을 두셋씩 뛰어내려 바깥으로 나온 뒤로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동작이며 반응이며 표정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면서 성공과 실패의 정도를 가늠해 보았다. 그리고 용기가 부족했던 것을 거듭거듭 탓하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조심조심 걸어갔다.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한 하늘과 바람과 어둠을

타하며 말이다.

카루난이 라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그러했다. 갑자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로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날의 실망스러움을 기억하면서, 그는 갑자기 내리는 빗방울을 불운의 징조로 보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아주 불안해졌다. 라다가 집에 없을 지도 모른다. 그녀가 나를 거부할지도 모를 일이다. 릴라에게 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번에도 꿈지락거리며 오래 대화만 나누다가 절망한 채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 라다의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육체를 떠올리게 되자, 카루난은 다시 전율을 느끼며 발걸음이 빨라졌다. 릴라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모르는 체해 버리고 말았다. 알게 뭐함.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비가 알고 보면 축복인지도 모를 일이다. 릴라는 빗소리에 열정이 되살아나지 않았던가? 비가 다시 행운을 가져다 주길 기대해 보자.

카루난은 라다의 집을 찾아 계속 걸었다. 주소는 몰라도 위치는 아주 잘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집 앞에 쿠타자 나무가 있지 않았던가? 차고 위에 있는 라다의 셋방 창문에는 빨간 커튼이 있지 않았던가? 집 앞의 쇠창살 대문에는 엄청나게 큰 개 두 마리가 있지 않았던가? 그 멍청한 괴물들 말이다! 내가 겁을 먹고 굳은 채 보고 있자니, 녀석들이 다가와서 큼지막한 꼬리를 흔들며 하품을 하고 커다란 귀도 흔들고 내 손을 핥기까지 했었지. 하하하! 이 무렵 카루난은 A 주택단지에서 B 단지를 거쳐 D 단지로, 이어서 C 단지 쪽으로 가다가 길을 잃고는 F 단지로 가고 말았다.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알려줄 주소가 없었다. 멍청한 개 두 마리 말고는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었던 것이다. 그는 쿠타자 나무가 있는 집들을 이미 여럿 지나쳤다. 빨간 커튼 때문에 속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카루난은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다리도 아파오기 시작했다. 절망감이 들자 더 피곤해졌다. 나에게 불리한 운명인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도 운명이 아니던가? 카루난은 앉아서 쉬고 싶어졌다. 동시에 그는 주변에 온통 환하게 밝혀진 창문들 가운데 한 곳에 그가 갈망하는 여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그는 미처 날 뛰는 괴물처럼 집들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라다를 데려가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



다. 보슬비는 어느새 그치고 말았다. 그는 좌절을 거듭하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찾기를 계속했다. 닫힌 쇠창살 대문 안을 뚫어져라 살피기도 하고, 나무를 전부 쿠타자 나무로 착각하기도 하고, 창문 커튼의 빛깔을 혼동하기도 했다.

그러다 갑자기 카루난은 등 뒤편으로 달이 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놀라며 돌아서서는 달이 은은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러다 시선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중에, 아! 바로 저기다! 개 두 마리가 쇠창살 대문 사이로 주둥이를 내밀고 있지 않은가? 틀림없어! 빨간 커튼이 있는 창이고! 마침 불도 환하게 켜져 있구나! 하하하! 카루난은 조용히 웃으며 집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개들 뒤로는 집의 안주인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쿠타자 나무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카루난은 문에 손을 얹으며 안주인에게 말했다. '여기가.....' 그런데 허공에 발을 내딛게 된 사람처럼, 카루난은 곧장 무언의 공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는 라다라는 이름을 기억해 낼 수 없어 혀가 얼어붙고 말았다. 말해야 할 이름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한 채 안주인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어야 했다. 그의 정신은 캄캄한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처럼, 이름들의 홍수 속을 더듬어 다녀야 했다. 그녀의 이름이 뭐였지? 릴라의 친구 말이야. 내가 찾아온 여인이건만.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니! 카루난은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린 상태로 달려야만 하는 사람처럼, 그는 속으로 술한 이름들을 허둥지둥 떠올려 보아야 했다. 니르말라, 카르티카, 랄리타, 우마, 마두리, 미나크시, 칼라니, 카르타야니, 헤마, 라자니, 칸차나, 라지, 비자야, 파르바티, 바산티, 데비, 라트나, 사로지니, 우샤, 산드야..... 서늘하고 축축한 코 두 개가 쇠창살 대문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애무하고 있었다. 차고 위로는 빨간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카루난은 소리치고 싶었다. 나 여기 있어! 하지만 그는 커튼 뒤에 있는 여인이 그로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임을 기억하게 되자 심장이 멎어 버리는 느낌이었다. 그가 질문을 마치기를 참을 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안주인을 그는 뉘 놓고 바라보며 서 있는 수밖에 없었다. 대문 안에서는 개 두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 함께 놀려고 안달하며 마구 뛰어다녔다. 어둡긴 해도 그것들의 커다란 꼬리가 경쾌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뭘 물

어보려고 하셨죠?' 안주인이 말했다. 바람에 쿠타자 나무의 가지가 갈리면서 한 순간 그들이 건넜다. 가로등 불빛에 카루난은 커다란 두 눈을 볼 수 있었다. 아까 우박이 녹아드는 길에서 그를 올려다보던 두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카루난은 왈각 울어 버리거나 한바탕 웃어 버리거나 달아나 버리고 싶었다. 소녀가 나의 초대를 받아들이다니!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군. 카루난은 혼자 웅얼거렸다. 그는 대문에서 물러나며 안주인에게 힘없는 소리로 말했다. '아뇨.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네요.' 그는 쿠타자 나무 그늘로 유령처럼 옮겨갔다. 그의 머리 위로는 바람이 나뭇가지와 장난을 하고 있었다. 아찔한 정신에 가로등과 나뭇잎들과 달빛이 어우러진 광경을 보니 만화경과도 같았다. 갑자기 창문의 빨간 커튼이 갈리면서 라다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라!' 그녀가 아이를 불렀다. '이리 와봐! 너한테 줄게 있어.' 어린 소녀는 라다의 방 쪽으로 달려가며 계단 수를 세었다. '하나! 두울! 세엿!' 카루난을 챙겨주던 미련스러운 큰 개 두 마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녀를 쫓아갔다.

로카 사마스타 수히노 바반투●

작가의 숙명은 이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럴듯하지 않은 이름들을 좇는 것이다. 작가는 기름 바른 몸으로 미끈미끈한 장대를 오르려는 사람 같다. 계속 미끄러지는 동안, 틀린 이름을 몇 번 건질 수도 있고, 이따금 '이름 없는 존재'의 도움으로 옳은 이름을 건질 수도 있다.

● Loka samasta sukhino bhavantu, 우주 만물이 신의 가호 속에 행복과 자유를 누리기를 비는 주문.

## Radha. Only Radha.

**Paul Zacharia** Paul Zacharia is a Malayalam short story writer, novelist and essayist. Born in Urulikkunnam in the Kottayam district in Kerala, India in 1945, he now lives in Trivandrum. His works have been widely translated into English and other Indian languages as well as other foreign languages including German. He was a recipient of the Sahitya Akademi Award. Zacharia's short stories and novels are radical in theme and heterodox in style. He is constantly experimenting technically, and his prose is devoid of sentiment. The Library of Congress has thirteen works by Zacharia in their collection. His criticism of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decadent Marxism has led to confrontations including physical attack.

It is not that I am unaware that M. Mukundan, my friend and renowned litterateur, has written a story called 'Radha, Only Radha' which is famous in Malayalam literature. I don't intend to trivialize the issue of my writing this story with the same title, or justify it by saying, 'After all, what's in a name?' Because I am one of those who believe that there are many things to a name.

Have you read Arthur C. Clarke's beautiful story, 'The Billion Names of God'? Upon receiving the information that, if one billion holy names of God are chanted without a break, the purpose of creation would be fulfilled, a great machine is engaged in performing that task in an ashram in the Himalayas. The scientists who have come over to observe the final moment of the chant, are constrained to go back before the machine utters the last name of God. Going down the mountain-slopes in the night, the scientists

pause at the precise moment when the machine shall utter the last holy name, and look around to see what happens. As they raise their faces to the sky, lo! up above, on the fringe of eternity, stars begin to go out one by one. The purpose of creation has been fulfilled. The universe is coming to an end!

Yet, isn't God the one without a name? That's God's privilege. He is the custodian of all names. The resonant voice of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pursues me from my childhood: Do not use God's holy name in vain! Says the *Chandogyopanishad*: All your knowledge is the knowledge of names. The four Vedas, *Vyakarana*, and Vedic rituals are all names. Know name to be the Supreme Spirit and pay obeisance! In *Brhadaranyakopanishad*, the soul which was formed in the beginning of everything, looks around and finding no one else, names itself and utters the first name: 'This is I.' It was then that the soul suffered loneliness and was afraid. Although the fear passed, unhappiness followed it. That was how the soul rent itself, created woman and followed her.

I have shared a character with Mukundan earlier too. It was the house-lizard, the gouli, a creature having wondrous powers, that appeared as an instrument of fate in our separate stories, Mukundan's preceding mine by years. When Mukundan's lizard concludes the story by executing fate's verdict in a lightning-like snap and gulp, the lizards in mine prolong it by enmeshing my hero in the net of goulisshastram, the science of divination by gouli-signs, for a long time.

Many are the instruments of fate! Many are the ways in which it intervenes! Countless lifespans are required to describe them all! Can a mere story provide even a distant glimpse, or a semblance of

what is ordained by fate; of the mystery of birth, death and time?

The limitations of art weary the writer. There are chasms between the word, the mind's smithy and the mirror of art. The writer's claim to truth traverses them on a razor's edge. Whose hands guide his lone word across?

The youth who appears in this story is tricked by fate with a momentary loss of memory. We shall see the young lady, Radha, hardly for a second. In the end, the youth mumbles: Radha. Only Radha. Fate vanishes, having plunged the curtain of forgetfulness upon him across the city-dusk. The youth would occasionally reminisce about the strange experience he had had and rack himself with new desire for Radha. He would mention it to one or two friends in the communion of alcohol. Soon it would become a chance piece of memory. But the writer's calculating eyes do not stray into that future. His down-turned look follows the footprints of fate. Like a hungry jackal, he trails fate on its hunts. Stories are born when fate enters.

At this point, please allow me to conduct an act of impersonation. Shed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ory-teller and the character, I shall be the hero of my story, for the present.

*Lead me from untruth to truth*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death to immortality.*

\*

Rising from the embrace of my lover, I stood looking out through

the window.

I could hear Leela breathing, lying on the bed, her eyes closed.

She was not asleep. I knew that she too was looking out like me, but from some inner window of an empty, easy mind. Outside, the suburb mildly panted. The wind grazed leisurely through treetops. Clouds flowed fast into the sky as if rushing out of a giant fountain. Suddenly the winds floated down. The sound of windows slamming rose all around. A few hailstones fell on the window sill and rebounded. From the safety of the shut window, I saw treetops capitulating to the wind.

Suddenly I felt a gaze. It was a little girl hanging on to her father's hand, her hair and dress flying. She was dancing through the hailstorm, looking up at me. Two big eyes searched my face behind the window glass.

I moved away from the window with a start. When I looked again, she was continuing her walk, picking up hailstones and trapping the wind in her open palms. I felt ashamed of my retreat. What guilt gave me that start? Was it my relationship with the woman lying on the bed behind me? I turned and looked at Leela. Her slumbering body filled me again with desire.

My greed for Leela was something that only a youth given to unrest and lost in an endless pursuit of love and lust, is capable of. Each encounter with her pushed me towards newer fantasies and fears. For a long time, I had been only a distant observer of Leela. Infiltrating little by little, I had established my presence in her room, the wonderful and unbelievable bedroom of a woman. Days dragged on. Weaving schemes one after the other to fulfill my lust, I would squirm on the seats in Leela's room, shifting from one to

the other like a caged evil spirit. She would hum, chat, make tea, go for her bath, change and go out with me for walks. Each moment Leela spent in the bath, I would hold on tightly to my seat lest my breathless body flew off.

Was she aware of all this? I never tried to find out. I preferred her mind and its secrets to remain inaccessible to me. Therefore, even when Leela stood quietly within my arms for the first time one day, I didn't want to worm my way into her. I believed that only the body-laws of odour, warmth, moistness, movement and stillness applied to the physical agreement we had arrived at.

Looking at the sleeping Leela, I was amazed to think that once upon a time I had spent miserable days, my heart growling like an angry beehive, imagining such a scene. Finally, one day, at the end of a long-drawn and boring conversation, I was getting up, all my hopes lost and confidence crushed. Leela too got up to go out with me. Outside, dusk hovered. As I came out, Leela put out the light in the room, and, awaiting my answer to a question she had just asked, delayed shutting the door. She was an indistinct figure in the darkness. Suddenly I lost my fear of the woman standing like a stranger in front of the half-closed door. The dusk that caressed the window-pane with fading light became my spy, escort and prophet in my bold enterprise. I led her back into the room, putting my arm on her shoulder like an old friend and shut the door.

Who was I kissing? I didn't understand. Who was in my arms? Who was this embracing me? What trick was the darkness playing? I stood there in a trance, ignorant of all else but my body's teachings, experiencing the shapes, tastes and odours of hair, neck, ears, eyelids, nose and lips. Darkness united us like a robe. At that

moment, a woman's lips asked me in a low tone, from near my cheek: Why did you wait till we got out of the room? I didn't reply that she should have asked: Why did you wait so long a time? I said: It is the darkness that enveloped you that gave me the courage. Let me now see you in the light. I switched on the light and saw a young woman regarding me soberly.

Behind me, Leela had fallen asleep. Her breathing grew quick. I resisted the desire to run my hands over her body. These rapacious hands of mine would shatter a crystal world of dreams. The wind had calmed down outside the window. The clouds that rained hail had fled and hung on the horizon lit up with lightning. Suddenly, there, along the footpath, came my little friend of the hail and winds! The prisoner of her father's hands was returning! I opened the window and waited, as if for a sign from her. I peeped out for the glance that would fly up towards me. She was now directly beneath the window. I waited, smiling. But she had long forgotten this window. She was counting her steps. One ... ! two ... ! three ... ! she called out, looking down at them. With each count, she stomped the street. In my mind I despairingly pleaded, Look at me ... I have no fear now. I am here. What is your name? Raise your head and look at my face. This is I. But she moved on ... one ... ! two ... ! three ... ! The counting rose through the rain-scented dusk, as if time was shouting out the day's accounts.

I covered Leela with a sheet on which butterflies and whiffs of clouds flew, and wrote on a piece of paper: Sleep. I am going now. Tomorrow? I put the paper on the table, closed the door, heard the metallic click banishing me and went down the stairs ...

Now, having reached the first phase of the conclusion, I must



leave my hero, I too must depart, like the scientists from the giant name-chanting machine. There are yet more names to be chanted for the final phase. And I must follow fate's trail of blood.

*Lead me from untruth to truth*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death to immortality.*

Karunan came out of Leela's room and walked hurriedly, toying with intentions he hadn't yet clarified to himself. The first was to have a drink. He loved alcohol as much as he did the female body, or perhaps more. He had gone to Leela drunk only on one occasion. Although she didn't stop his hands, she said thoughtfully: 'You feel like someone else.' Karunan moved away with a start and looked intently at her. He trembled before her thoughtfulness. He felt like shouting: This is I! None other! Alcohol is my good companion. My succour when I am tormented by visions of soft and magical flesh. My friend who anchors my solitude.

It was in the loneliness of the bar that Karunan had learned to be reconciled to himself. Karunan, his head held high, would sit on the old cane chair in the empire of dim light that was the bar, with an air of importance—the owner of a bottle, the observer of the world, a full-grown person. Alcohol would set him free from the abysmal memories of all the women he had coveted, and guide him into its slow time, pacify him, and forgive him his formidable litany of lusts.

His customary wine-shop was closed today. As Karunan stood irresolute in front of it, a new plan took shape in his head. It had

been at the back of his mind even a little while ago, as he stood at Leela's bedroom window looking out. He deftly justified this new scheme of lust as an opportunity to test the self-confidence he had derived from his conquest of Leela. Karunan did not want a choice. For he was utterly infatuated with Radha, Leela's friend. The alarming and incestuous nature of the relationship he thought he might be able to achieve with two women who were friends, without either of them knowing about it, thrilled him. The danger that lurked in it recklessly intoxicated him. Karunan was, in fact, in love with all the women in the world. He wasn't able to quench or suppress this need. It was an urge that spread and flowed through his days and nights and dreams, a craving that didn't moor itself to anything, a miserable tilt towards the female body that followed him like a slinking beast. Karunan was already walking fast towards Radha's house.

It was he who had escorted Radha home one night from Leela's room. At the door, she had invited him in, causing desire to sprout in him. Heart clamouring and lips dry, he had entered Radha's room and peered around. Here I am again, in a woman's bedroom! He sat down and bit his nails. He observed every movement of Radha's with screwed up eyes and unflagging attention. The sounds she made in the bath shook him up like thunderclaps. He stirred and then concentrated on suppressing a desire to visit the toilet, till his mind was exhausted. He kept talking to Radha, telling her a lot of unnecessary things in a needlessly raised voice. When he became aware that his visit had become protracted, he directed several searching looks at Radha's face, bade her farewell, leapt down two-three steps together, and having reached outside, re-checked

in his mind her every movement, reaction and facial expression, calculated the degree of his success and failure, blamed his lack of courage again and again and unhappy and troubled, crept on, cursing the darkness, the wind and the sky that had begun to scatter raindrops.

That was the memory Karunan had of his last visit to Radha's house. Now, a few raindrops fell on him. This troubled him no end. Remembering his past disappointments, he viewed the abrupt raindrops as a sign of misfortune. What would happen? He was thrown into great anxiety. Perhaps Radha would not be at home. Or she might reject me. And complain about me to Leela. Or else, I may have to sit once again, fidgeting and making long conversation and return, filled with despair. The thought of Radha's sensuous body-secrets rattled Karunan again, and accelerated his footsteps. Although memories of Leela appeared in his mind once or twice, he pretended not to notice them. Who knows, he said to himself: It may be that the rain will turn out to be a blessing. Didn't the sound of falling rain fill Leela with renewed passion? Let the rain bring me good luck again.

Karunan kept walking in search of Radha's house. Although he didn't know the address, he was sure that he knew the location very well. Wasn't there a kutaja tree in front of it? Wasn't there a red curtain in the window of the rented room Radha lived in, above the garage? Weren't there two gigantic dogs at the main gate of the house? Two stupid giants! When I was scared stiff seeing them, they had come near, wagged their big tails, yawned, and shaking their huge ears, licked my hands. Ha! ha! ha! Karunan had by this time walked from A-Block to B and from there to D and then,

around to C and from there, losing his way, to F. There were many people taking a stroll. But he didn't have an address to show them. Apart from the two foolish dogs, there was no tell-tale identification. He had already passed several kutaja trees. Many red curtains had already deluded him. Karunan was gripped by a fear that he was losing the game. His legs had begun to ache. Despair further fatigued him. Is fate against me? Wasn't it fate that brought me here? Karunan wanted to sit down and rest. At the same time, when he thought that behind one of those windows shining all around him was the woman he craved for, he couldn't bear his plight. He felt like tearing down the walls of houses like a raving monster and carrying Radha off. The drizzle had receded. Staring at closed gates, mistaking all trees for kutajas and mixing up the colours of window-curtains, he continued his search, depressed, terrified and desperate.

Suddenly, Karunan became aware that the moon had risen behind him. He turned around in wonder and stood watching it rise, bathed in a mellow glow. Then his eyes drifted to one side, and ...! There! Two dogs putting their snouts out through the bars of the gate! There! A window with a red curtain! And it was filled with light! Ha! ha! ha! Karunan laughed silently, and walked up quickly to the gate. Behind the dogs, the landlady stood holding the hand of a little girl, their faces hidden in the shadow of the kutaja tree. Placing his hand on the gate Karunan asked the landlady: 'Is it here ...' And like someone stepping on a space that isn't there, Karunan fell headlong into a mute emptiness. His tongue froze, unable to remember the name, Radha. Failing to formulate the name he was to utter, he stood dumbly looking at the landlady.

His mind, like a diver in lightless waters, groped around in a deluge of names. What was her name? Leela's friend. The woman I came in search of. The name is on the tip of my tongue! Karunan felt his head reeling. Like a man racing on sagging legs, he scrambled through a long list of names: Nirmala, Karthika, Lalitha, Uma, Madhuri, Meenakshi, Kalyani, Karthyayani, Hema, Rajani, Kanchana, Raji, Vijaya, Parvathi, Vasanthi, Devi, Ratna, Sarojini, Usha, Sandhya .... Two noses, cool and soft, rubbed lovingly against his hand holding the gate. Above the garage, a red curtain flew up in the wind. Karunan felt like shouting: I am here! But when he remembered that the woman behind the curtain was someone whose name he did not know, his heart crashed. He stood gaping at the landlady, who waited patiently for him to complete his question. At the other side of the gate, the two dogs rushed about excitedly, straining to reach him, to play with him. Their enormous tails swam rhythmically in the dark. 'What were you asking?' said the landlady. The boughs of the kutaja tree parted in the wind and the shadows cleared for a moment. In the light thrown by the street lamps, Karunan saw two big eyes that had earlier looked up at him from a road where hailstones were melting, now looking at him again. Karunan wanted to burst out weeping, laugh aloud or run away. She has accepted my invitation! It's late, very late, Karunan murmured. He withdrew from the gate and told the landlady in a weak voice: 'No, I've come to the wrong house.' He moved into the shadows of the kutaja tree, like a wraith. Above him, the wind frolicked with the leaves. Street lamps, foliage and moonlight conspired to make a kaleidoscope of wheeling light. Suddenly, the red curtains were parted and Radha's face appeared in the window.

'Bala!' she called out to the child, 'come here! Let me give you something.' The little girl ran towards the room, counting her steps: 'One ... ! two ... ! three ... !' The enormous dogs ran after her like two retarded monsters, ending their loving vigil for Karunan.

*Lokah samastah sukhino bhavantu.*

The writer's destiny is to run after the inconceivable names in the universe. He is like a man attempting to climb a greased pole, with an oiled body. As he keeps slipping, he, might manage to clutch a few phony names, or, if he has the support of the arms of the Nameless One, a right name too, sometimes.